

제3362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홍콩, 2월 최초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승인 2



삼성,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왕좌' 탈환 6

‘중동 쇼크’ 2월 강타 요동치는 금융시장

중동 2월 크레바스 공포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치솟는 유가의 여진으로 긴축 완화를 바라던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전망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갯속’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15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한때 급락하고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11.39포인트(0.42%) 하락한 2670.43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2641선까지 떨어졌다. 코스닥지수도 852.42로 전날보다 0.94% 하락했다. 한국 이외 아시아 증시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 225 평균주가는 0.74% 떨어졌고, 홍콩 항셱지수는 0.72% 내렸다. 대만 가권지수(-1.38%), 호주 ASX 200지수(-0.46%) 등도 중동발 충격에 휘청였다.

▶ 관련기사 3·4·10·14·19면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60원 오른 1384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2년 11월 8일(1384.9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화 가치 약세는 역사적으로 증시에서 외국인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다.

이날 오전 한때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3.97엔까지 올랐다. 엔화 가치가 1990년 6월 이래 약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금값도 치솟았다. 한국거래소 KRX 금 시장에서 이날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날보다 0.86% 오른 10만7300원에 마감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한때 온스당 24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금 가격 2400달러 돌파는 사상 처음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중동 리스크의 확산 여부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

코스피 0.42% 하락한 2670.43 엔·달러 환율 153.97엔 찍기도
금선물, 한때 온스당 2400달러↑

산유국, 전쟁 개입 뎀 유가 폭등
美피벗 지연·인플레이션 재점화

들의 전쟁 개입으로 사태가 더 악화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국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 클 수 있다. 전 세계 원유(약 13%), LNG(약 30%) 수출의 핵심 루트인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될 경우 원유 가격은 130~150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쟁보다 더 두려운 건 미국의 피벗(Pivot·긴축 정책 전환)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중동 사태가 물가를 자극해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 세계 각국의 부담과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12일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1.9bp(1bp=0.01%포인트) 상승한 연 4.523%를 찍었다.

정부도 중동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란·이스라엘 사태와 관련해,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향후 국제 유가와 환율 움직임, 글로벌 공급망 상황 변화 등과 그 파급 영향에 따라 국내외 성장·물가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소지가 있다”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등 잠재적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춰 달라”고 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원·달러 환율이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 등의 영향으로 1380원대로 상승 마감했다.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39(0.42%)포인트 하락한 2670.43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60(0.63%)원 오른 1384.0원으로 마감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상목 부총리 “유류세 인하 6월까지 추가 연장”

비상경제장관회의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한 ‘중동 사태’와 관련,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9면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중동사태 관계기관 비상대응반 가동 금융·외환 과도한 변동성 적기 조치”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완화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대의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국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해서는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다행히 현재까지 현직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되어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중시) 밸류업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필요한 과제다.”

15일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초청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 의사결정 참여자들과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계획이다.

국내 주식시장은 지난해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 13위(2558조원), 상장기업 수 7위(2558개사)를 기록하며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인프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본연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밸류업, 정치 무관한 과제… 경제주체 힘 모아야”

이 원장은 여당의 총선 참패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떤 정당이 우리 자본시장에 불을 일으켜 과거 부동산에 매여 있던 우리 자산운용의 틀을 생산적이고 다양하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는 것에 반대하겠냐”고 반문했다.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자·정부 등 3대 경제 주체는 물론 여·야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다. ▶ 관련기사 5·12면

법인세 및 배당 관련 세금 감세 등에 야당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밸류업 및 자본시장 활성화는 세

“생산적 자산운용 누가 반대하겠나
자본시장 활성화 세제만으론 안돼
금투세, 투자자 의견 더 들어봐야”



제만으로는 안 된다”면서도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게 공정한지, 효율적인지, 전체 파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지 공론화해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라면서도 “1~2년 만에 주주환원 정책을 못하는 기업을 기업시장에서 어떻게(퇴출)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부실기업에 대한) 거래소 퇴출은) 불공정 거래 대응이나 거래소 운영의 적정성 차원”이라고 답했다.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향방에 대해서는 “오래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금투세가 최초로 논의될 때와 지금의 금투세 부과 대상이 어떤지, 본인이 고액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개인 투자자들이나 자본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자본시장 전체의 생산력이나 주가에 건강한 추세 형성이 도출될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인지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4월 중에도 개인 투자자들과 공대도나 다양한 밸류업 관련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금투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이 어떤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면 그것 역시 입법을 직접 하는 의사결정 주체들께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중동약재 걷어냈다... 홍콩, 2초 최초 비트코인 ETF 승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반감기 D-5, 가상자산 호재

미국 이어 홍콩, 현물ETF 승인
가상자산=주류 투자자산 이정표
중국계 자본 유입 가능성 제기에
“중정부 금지로 효과 제한” 의견도

홍콩에서 아시아 시장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에 각각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나온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이슈로 꼽히는 비트코인의 4번째 반감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홍콩발 호재가 반등을 이끌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올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기관 자금 유입 등으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ATH)를 경신했다.

홍콩 증권·규제당국이 15일(현지시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아

시아 시장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주류 투자자산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통하는 큰 호재다. 올해 1월 미국 SEC가 블랙록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현재까지 약 590억 달러 넘는 자산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됐다. 이를 계기로 비트코인 가격 역시 지난달 약 2년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7만375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홍콩발 호재가 중동발 약재를 덮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중동발 전쟁 리스크로 인해 7만 달러 선이 무너졌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13일(현지시간)에는 한때 6만1000달러까지 급락했고, 이후 6만5000달러대를 오르내리며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알려진 직후 1000달러 이상 상승한 6만6000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홍콩의 현물 ETF 승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 파급력 (당일 오전 9시 기준)

	날짜(현지시간)	비트코인 가격	파급효과
美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1월 12일	4만6354달러	첫 날 거래량 46억달러 ↑
승인 후 2달 간 꾸준한 상승세	3월 14일	7만3750달러	28개월 만에 신고가 경신
자금 유입	4월 13일	6만7118달러	3개월간 유입 자금 590억달러 ↑

※ 출처: 코인마켓캡

다시 한번 업계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 첫 번째 사례기도 하고, 홍콩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갖고 있는 입지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 시장에도 또 하나의 좋은 참고 사례가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분석가 ‘크립토탐’ 역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비트코인에 대해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1차적으

로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고, 최근에는 유입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홍콩에서도 현물 ETF가 승인되며 중국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렇게 되면 중국계 자금 유입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미국 자금의 추가 유입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져, 더 긍정적인 상승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다만, 비트코인의 경우 이미 미국발 호재가 한 차례 있었던 만큼, 파급력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것 같다”면서도 “비트코인의 펀더멘털과 가격 상승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

고 덧붙였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는 “홍콩에서 미국보다 먼저 승인이 된 것이고, 이더리움이 최근 가격적으로 많이 부진했던 만큼, (비트코인 대비)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이 상승하게 되면 알트코인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알트코인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홍콩의 현물 ETF 승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총리 만난尹 “국정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

오늘 국무회의서 총선패배 입장
국정쇄신·巨野협치 등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쇄신 방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국정 쇄신’, ‘경제·민생 안정’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야권과의 ‘협치’를 위한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5일 제22대 국회의원 총

선거 이후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 총리에게는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 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총선 관련 메시지 전달 방법으로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등도 검토했으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국

회와 협치 노력 등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그간 밝힌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 의지를 표명할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이미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실장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야당과 긴밀한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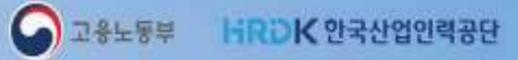
조,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 차원의 인사를 메시지에 담을지도 주목된다. 지난 주말 사이 정치권에서는 총리와 비서실장 후보군이 거론되기도 했다.

총리 후보군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의힘 중진인 권영세·주호영 의원, 이번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지역구에 출마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은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비

서실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거거(총리 후보)를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낭설이라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 조직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심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민정수석실’ 부활이다. 민정수석실 역할인 ‘사정 기능’은 빠지고, 여러 가지 민심을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나온 구상이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하게 되면,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2024년 2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신청기간: 2024. 4. 22.(월) ~ 5. 3.(금)

신청업종: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포함)

* 고용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외국인/고용주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7일)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일련, 절차 관련 상세사항은 홈페이지(www.eps.go.kr 또는 www.work24.go.kr) 공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에서 신청 가능

*** 세부 일정**

- 신청서 접수: '24. 4. 22. ~ 5. 3.
-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24.5.21.
< SMS 문자 및 EPS홈페이지 >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 조선업 → '24.5.22.~5.28.
농축산업, 서비스업(한식 음식점업, 호텔 콘도업 포함),
건설업 → '24.5.29.~6.4.

‘밸류업 강제반납’ 韓증시… “반도체주 오히려 매수 기회”

전문가, 국내 증시 전망

장밋빛으로 물들던 세계증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일어났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다. 겉으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지만, 마치 1970년대 극심했던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이는 한국 증시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전망이다. 중동전쟁 여파로 고금리·고유가·고환율 ‘3고(高)’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미국의 피벗(Pivot·긴축 정책 전환) 지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국 경제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돈다.

전문가들은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산하는 최악의 국면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적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3고 현상’에 짓눌린 한국 증시가 변동성의 그늘에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3고 현상 속 외인 이탈 우려=시장전문가들은 고금리·고유가·고달러 등 3고 현상 장기화 여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15일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전쟁 확산으로 원유 수출국이 본격적으로 잠전하면 유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추가 무력 충돌이 없으면 일시적 요인에 그칠 수 있지만, 전쟁이 확산하면 고물가가 지속하고 금리 인하가 지연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중동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된 7월 전까지 3고 현

7월 FOMC 전까지 3고 유지 외국인 제한적 이탈 가능성 커져 호실적 반도체·車·IT 종목 주목 코스피 밴드 하향 가능성엔 이견

상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제한적인 이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달리 강세-원화약세 국면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처지에선 가만히 앉아서 수익률을 까먹는 셈이어서, 환차손이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챙겨떠나는 경향이 있다. 이날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2380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 물도 4300억 원 가량 처분했다. 이날 들어 매도 규모는 3조1000억 원대로 불어났다.

장희중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외국인은 원화 약세가 손해라 고환율 상황에서 이탈 흐름이 거세질 수 있다”면서도 “원화 자산이 변동성 구간에 있지만, 잠시 조정이 이뤄지는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팀장은 “달러가 강해지는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 합리적”이라면서도 “자금을 우선 뺏 곳은 한국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사는 종목은 반도체인데, 미국의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리스크 관리하면서 반도체 사리”=투자자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실적 예상치가 좋은 국내의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센터장은 “2, 3분기 실적이 좋아질 만한 반도체와 자동차, IT나 현금 흐름이 창출될 은행 등 고

중동 사태 관련 증시 전문가 의견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장희중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팀장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유가 폭등 가능... 중동전쟁 확산 시 코스피 밴드 낮아질 수 있어	7월 FOMC 전 3고 현상 유지 전망... 밴드 상·하방 변동 폭 줄어들 것	이란·이스라엘 공격 일회성... 덜 오른 빅테크·장단기 국제 매력	중동 리스크 우려 과도... 삼고 영향 덜 받는 반도체 주목	시장 불안 단기적... 자동차·은행주 등 매수 기회

배당 기업을 추천한다”며 “특히 반도체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말했다.

장 부장은 “빅테크 중에서도 덜 오른 종목을 향후 실적이나오는 것을 보며 선별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이라며 “보수적 투자자는 미국 단기국채의 금리 매력을 취하는 것도 방법이며, 변동성이 커보이면 장기 국채를 갖고 있어도 손해는 안 볼 것”이

라고 조언했다.

코스피 밴드 하향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박 센터장은 “중동전쟁 상황이 훨씬 거칠어지고 환율과 유가가 더 많이 오르면, 이를 예측하지 못한 만큼 코스피 밴드를 낮게 잡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코스피 밴드가 하향 이탈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상방과 하방

모두 변동 폭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팀장은 “이 정도 심리 불안으로 밴드를 낮추기 어려우며, 한국 기업 실적은 지금도 플러스기 때문에 코스피는 우상향할 것으로 본다”며 “유가가 2배 이상 오르면 실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권태성 기자 tskwon@ 김효숙 기자 ssook@

중동사태에 영끌족 비명 주담대 금리 더 오를 듯

금융채 5년물 금리 다시 상승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안갯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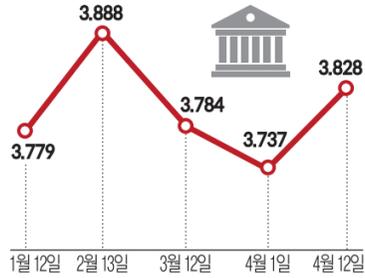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높아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시장금리가 오를 것으로 점쳐지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족을 비롯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은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연결돼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15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가 되는 금융채(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연 3.828%로, 한 달 전(3월 12일 3.784%)보다 0.044%포인트(p) 높아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날 기준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14~5.774%로 이달 4일(연 3.05~5.726%)보다 금리 하단이 0.09%p 올랐다. 시중은행들은 연이어서 시장금리를 인상하는 분위기다. 2월 한 차례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신한은행은 이달 들어 0.1~0.3%p를 추가로 올렸다. 국민은행도 2월 주담대 금리를 0.23%p,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0.1~0.3%p 인상했다.

이처럼 최근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것은

은행채 5년물(AAA) 금리 (단위: %)

※ 출처: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이다. 특히 옆친 데 닳친 격으로 이란-이스라엘의 직접 충돌에 따른 중동 사태 확산 위기가 고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형국이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채권시장에서도 장기채권보다 단기채권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장기채권 금리도 상승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준금리도 영향을 받아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저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기자 jiy0403@



자본시장의 숲을 성장시키는 한국증권금융

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증권사 한 곳 한 곳이 모두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본시장의 숲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파트너, 한국증권금융

불붙은 ‘중동 화약고’… 해운·항공·석화업계 “油 油”

국내업계, 고유가 우려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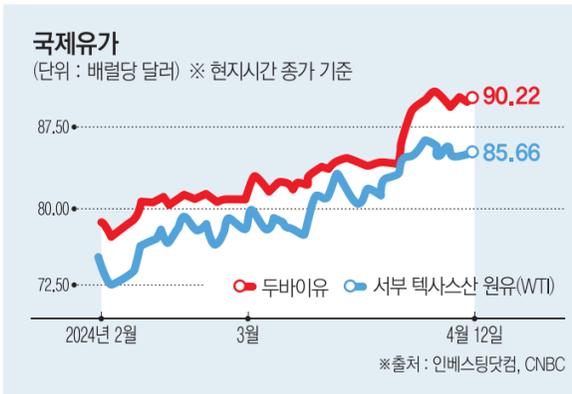
석화 “원재룻값 상승엔 악재 누적”
정유 “장기화 땀 수요부진 못 면해”
항공 “여객 수요 대비 마진 악화”

이란·이스라엘발 중동 리스크 심화로 유가 상승이 예상되며 국내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를 비롯해 항공·해운업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서부텍사스유는 배럴당 85.66달러로 전 영업일 대비 0.75% 상승했다. 이미 유가는 상승세였지만, 이번 사태로 더욱 급등하는 모양새다. 업계는 배럴당 100달러는 물론, 국제 원유 운송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국내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중동 리스크로 인한 당장의 여파는 없지만, 기초원료인 나프타 가격 상승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리스크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경우, 이미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업황 부진이 장



‘이란-이스라엘’ 전쟁 리스크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

- 석유화학: 기초원료 가격 상승 가능성
- 정유: 유가 상승 따른 단기적 이익 증가 장기화 시 마진 하락 및 수요 위축
- 항공: 유류비 부담 증가
- 해운: 연료비 부담 증가



기화된 석화업계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원재료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원유를 도입해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몇 주 정도 소요된다”며 “원재료 가격 추이와 현지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이익 증가를 예상한다. 사태 이전부터 국내 정유업계는 유가의 상승세로 올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좋은 분위기를 이어왔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이어져 정유

업계 상황 역시 점차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이번 사태가 전쟁 등으로 리스크가 커지면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마진이 하락할 것”이라며 “한국처럼 석유가 나오지 않고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서 파는 곳에선 마진 하락과 수요 위축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항공업계 역시 이번 사태와 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항공유가 항공사의 전체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유류비 부담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선 이번 사태가 코로나19 이후 제2의 호황기를 기대하던 상황에 맞

아온 북병이라고 평가한다. 지난달 인천 국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565만 5938명으로 이는 3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 2019년 3월(583만 5616명) 이후 2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할 때마다 국내 항공업계의 유류비는 약 2800만 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본다”며 “그렇다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항공권 가격을 올리면 여객 수요가 지속 증가하던 최근의 좋은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도 유가 강세로 인한 연료비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유가가 상승할수록 연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실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

업계는 통상적으로 지출의 10~25%를 연료비로 사용한다. 유가 상승은 영업이익에 분명한 위압 요인이지만, 이번 사태로 운임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유가 상승은 지출 급증을 불러오는 만큼, 부정적 요소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흥해 사태와 같이 이번 사태로 운임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란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김민서 기자 viajoporlune@

앞친데 ‘強달러’… 수출효자 덮치나

17개월 만에 연고점 경신

원·달러 환율 1400원대 근접
전자 “생산가 상승·영업익 악화”
항공 “유류비·리스비용 부담 ↑”
철강 “수입에 의존, 수익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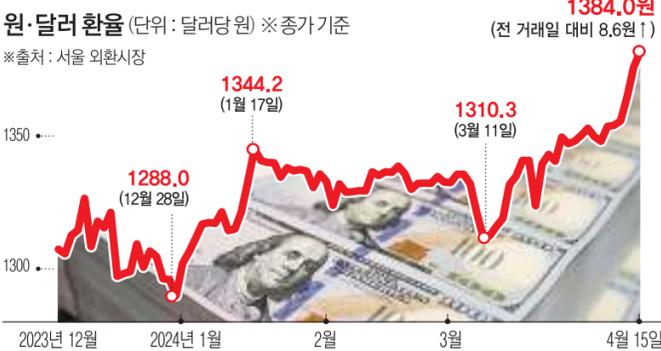
원·달러 환율이 17개월 만에 1380원대를 넘어서는 등 연고점을 경신 중인 가운데, 중동 리스크 여파로 1400원을 돌파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산업계는 이번 사태로 고유가 외에 환율·원자재값 폭등 등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5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8.60원 상승한 1384.0원을 기록했다. 증가 기준으로는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다.

최근 환율이 급등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가 기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 이런 와중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감행으로 중동 리스크가 심화하며 환율 오름세가 한동안 지속할 것이라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예상이 나오면서 환율에 민감한 항공, 철강, 전자업계는 비용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환율 급등을 예의주시 중이다. 반도체 등 여러 품목은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더 많은 만큼 환율 상승 국면은 단기적으로는 때



출 증대와 수익성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유가 상승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파생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은 “수출하는 입장에서 환율이 올라가면 소득이 많아지므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향상될 수 있다”면서도 “유가 급등 등 파생 효과로 국내 기간 산업에 영향을 주면 결론적으로 생산단가를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는 단기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항공유와 항공사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을 달러로 결제하는 만큼, 환율로 인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중동행 직항 노선인 이스라엘 텔아비브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노선 운항이 지난해부터 중단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영공을 통과하는 노선도 없어 별문제는 없

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가 상승하면 유류비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환율이 상승하면 항공기 리스 비용 부담이 커져 영향이 갈 수 있다”며 “사태가 장기간 지속하느냐, 단기간에 끝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철강업계에서도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상황이 장기간 지속할 땐 환율 영향으로 원자재값이 올라 회사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철강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유가와 환율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며 “현 수준에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한다고 해서 철강사들이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준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사태의 여파로 환율이 장기간 영향을 받게 되면 철강, 석탄 등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업계 특성상 수익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전원 재택근무·사업장 폐쇄” ‘K-신시장 개척’ 포화 속으로

현지 진출 기업 좌불안석

삼성넥스트, 현지 사업장 폐쇄
HMM, 호르무즈 봉쇄여부 주목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국내 기업들도 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쟁 상황이 악화하면 실적에 직간접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스라엘 현지 직원들은 현재 재택근무로 전환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향후 상황 악화 시 현지 정부 가이드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투자자회사 삼성넥스트는 최근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있는 현지 사업장을 폐쇄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장기화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넥스트 이스라엘 지사는 당분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사에 통합 운영된다.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한 기존 투자는 그대로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이란의 공격으로 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이스라엘 지사 복귀 여부 및 추가 투자 등은 불분명해졌다.

이스라엘 지사를 이끌었던 예알 밀러 삼성넥스트 부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스라엘은 삼성넥스트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 결정은 10년간 함께 이뤄온 성과를 악화시키지는 않는다. 기존 파트너 회사들과 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로서는 그간 신시장 동력 강화를 위해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온 만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삼성넥스트는 지금까지 약 70개의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투자를 단행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스타트업 13곳에 투자해 외국계 벤처캐피털 가운데 가장 많이 투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9월 이스라엘 연구개발(R&D) 센터에서 혁신 스타트업과 신기술 투자 현황을 보고받고, 미래 혁신 기술 확보 방안을 점검하기도 했다.

LG전자 역시 이스라엘에 현지 법인과 지사를 두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현지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MM 등 해운업계에서는 이번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을 향하는 유일한 통로다. HMM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벌크선을 운항하고 있다.

HMM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엔 컨테이너선 4척, 벌크선 1척이 들어가는데, 이달에는 벌크선 1척만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아직 봉쇄된 것이 아니라 운항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HMM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 역시 긴장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이스라엘 현지에 공장이나 연구시설 등 주요 거점 없던 당장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부품 조달 및 현지 판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재 별다른 피해는 없다”면서도 “이스라엘 시장 내 자동차 산업 현황에 대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김해욱 기자 haewookk@·김문정 기자 kangmj@

‘민생토론회’서 쏟아낸 240개 과제 ‘공수표’ 되나

尹, 과제 123건 연내 추진 계획

정책과제 85건 중 4건 국회통과
금투세 폐지 등 81건 입법 필요
‘공사가·단통법’ 등 폐지·수정 기로
‘특검 이슈’에 21대 처리도 희박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과제 수는 총 240개이며, 이 중 법률과 하위법령(시행령) 등 총 123건의 과제를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과제인 85건의 법률 중 4건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81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45건)이거나 아직 관련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36건)으로 나타났다.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사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

민생토론회 발굴 정책 과제

- 정책과제 수 : 240개
- 입법계획 123건 연내 추진(법률 85건, 하위법령 38건)
- 법률(85건) : 국회통과 4, 계류 중 45, 제출필요 36
- 하위법령(38건) : 정비완료 12, 정비필요 26
- 국회통과 법률(4건)
 -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 정비완료 하위법령(12건)
 - 주택법시행령 등 4건, 소득세법시행령 등 2건
 - 식품위생법시행령 등 3건, 단말기유통법시행령 등 3건
- 향후 입법 추진대책
 - 국회 통과 필요 45건, 국회 제출 필요 36건, 정비 필요 하위 법령 26건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법) 폐지 등 81건은 현재 국회에서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공사가 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공사가격 현실화를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고 “엄청난 부작용과 국민 고통만 가중했다”며 전면 폐지를 공식화했다. 다만, 이를 폐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야당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정부는 이 또한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입법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도 조특법 개정 사안이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의 경우엔 야당도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여야 간 접점을 찾기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밸류업 조치는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단통법 폐지는 민주당도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어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진 속도가 늦어지거나 궤도가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민생토론회 정책들은 ‘특검 이슈’에 밀려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왔지만,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들은 여야가 쟁점을 다루는 사안들이 다수여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전국민 25만원·출생소득...

민주당 압승에 ‘巨野 기본소득’ 온다

나라 곳간 적신회... 정면충돌 불가피
‘공약 재검토·여야 협의의 우선 필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강도 보편복지 드라이브와 건전재정을 내건 정부여당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출생기본소득 등 조(兆) 단위 현금성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장 재정제 기반한 야권의 정책 기조와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13조 원 규모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자녀 1인당 0~17세까지 월 20만 원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과 고교 졸업까지 월 10만 원씩 펀드 계좌로 별도 적립해주는 ‘기본자산 1억 원’도 약속했다.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공약으로 내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출생부터 24세까지 매달 고정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0~7세까지 월 50만 원(연간 14조5000억 원), 8~24세까지 월 30만 원(연간 30조 원)이다.

이러한 정책을 위해선 연간 수십조 원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재원 계획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혹은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정책 재조정, 금융·정유사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 등에 그쳤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며, 추경 역시 정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하반기 예산정국에서 정부의 역점 사업 삭감을 고리로 일부 사업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차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이 일단락되면 보편복지 정책 관철을 위한 대정부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문가는 나라 곳간에 적신회가 커지면 큰 총선용 선심 공약은 의석수와 관계없이 재검토와 여야 협의의 등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 건전성이 매우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야 하고, 공약했다라도 선거가 끝났으니 차분하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이런 선거 공약을 다 실행하면 나라는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권이 다수 의석을 가졌더라도 정부여당과 협의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 ·

Energy Up, Tomorrow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삼성전자, 스마트폰 왕좌 탈환... '시폰 선점' 효과 톡톡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이 올해 1분기 10% 가까이 감소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다시 세계 1위 지위를 탈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894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이 중 아이폰 출하량은 5010만 대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9.6% (500만 대) 줄었다. 이에 비해 삼성은 스마트폰 출하량이 6010만 대로 0.7% 감소에 그치면서 다시 1위 자리에 올랐다. 삼성과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0.8%, 17.3%로 집계됐다. 삼성은 1분기 만에 왕좌를 되찾았고 애플은 상위 5개 업체 중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나빌라 포팔 IDC 리서치 디렉터는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 2년간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해졌고 변화하고 있다”면서 “애플과 삼성 모두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삼성은 최근 분기보다 전반적으로 더 강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3~5위는 샤오미(4080만 대), 트랜션(2850만 대), 오포(2520만 대) 등 중국 기업들이 싸늘했다. 점유율은 각

올해 1분기 출하량 6010만대
글로벌 점유율 20.8%로 1위

역대급 흥행 ‘갤S24’ 일등공신

애플, 아이폰 점유율 17.3% 그쳐
중시장 부진 등 출하량 10% 푹
하반기 ‘아이폰16’ AI폰 맞대결

각 14.1%, 9.9%, 8.7%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샤오미와 트랜션은 출하량이 작년 1분기에 비해 각각 33.8%, 84.9% 급증해 눈에 띈다. 오포는 출하량이 8.5% 줄어 들었다.

삼성도 지난해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순위에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빼앗겼지만, 올해 1분기 빠르게 되찾아 주목된다. 지난해 전체 기준으로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애플이 2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삼성이 19.4%였다. 당시 애플의 추월은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타개하고자 지난해 10월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와 함께 적극적인 보상 판매 정책,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등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시행했기 때문이

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삼성이 출하량 1위를 유지했으나 4분기에 애플이 역전했다. 또 작년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었음에도 애플만이 유일하게 출하량이 늘어난 배경이기도 하다.

올해 첫 분기 삼성의 재기는 1월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를 출시하며 AI 폰 경쟁에서 선두를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삼성은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에 밀리고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으면서 중간에 끼인 ‘넛 크래커’ 신세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삼성은 AI 시대를 맞아 중저가폰 판매 확대를 통한 선두 탈환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전세를 역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삼성은 올해 1억대의 갤럭시 모바일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해 AI 폰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애플도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플은 올 하반기에 나올 ‘아이폰16’에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니AI’를 아이폰에 탑재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영 기자 mint@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4% “내 차 대신 대중교통” 두 달 만에 온실가스 3600톤 줄였다

서울시, 이용현황 분석

승용차 운행량 하루 1.1만대 ↓
1인 월평균 교통비 3만원 아껴
문화·공원시설 입장료 할인 연계
관광객 전용 단기관 도입 계획도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권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약 4%가 평소 타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5일 서울시는 1월 27일 출시한 기후동행카드의 두 달여간 이용현황과 성과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시는 이달 5일 누적판매 100만장을 돌파한 기후동행카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분석했다.

시가 지난달 8~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4% (127명)가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1586명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230명은 평일 출퇴근 등 승용차 상시 이용자였다. 이들 중 225명은 기후동행카드 구매 후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127명은 월 20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평일 사용자가 평균 50만 명임을 고려했을 때, 약 2만 명이 월 20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통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 같은 결과로 하루 1만1000대가량 승용차 운행량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일반적으로 승용차 1대에서 발생하는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이 1.96톤(t)임을 감안하면, 기후동행카드 출시 두 달 만에 약 36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셈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독일은 49유로(도이칠란드 티켓) 시행 이후 승용차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약 8%로 나타났다”며 “기후 대응에 있어 유의미한 비용이 정해진 건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 같은 대중교통 전환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절감한 교통비는 1인 월평균 약 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 2만9000원 △30대 2만7000원 △40대 2만8000원 △50대 3만1000원

△60대 3만5000원이었다. 기후동행카드 구매 연령대는 △20대 29% △30대 28% △40대 15% △50대 18% △60대 9%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기후동행카드와 문화·공원시설 입장료 할인 연계, 관광객을 위한 단기관 도입, 인접 지방자치단체로의 서비스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다.

기후동행카드에는 매년 1500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7월 본 사업 시행 전 최대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전망이다.

윤 실장은 “5월부터 K-패스가 시행되지만,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동시에 쓰기는 어려워 예산 일부 저감 폭이 있다”며 “(기후동행카드)는 수도권 주민에 대한 교통 복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채빈 기자 chaebi@

〈조규홍·박민수〉

전공의 1360명, 복지부장·차관 고소 교수들엔 “아무런 행동 안해” 작심비판

“차, 사직서 수리 금지 등 직권남용”
의대 교수-전공의 ‘내부갈등’ 분출
정부 “통일된 대안 제시” 거듭 요청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와 협상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한의사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와 회장 당선인 사이의 내부갈등을 수습했지만,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병원 경영진까지 단일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아 의정(醫政) 간 대화 시작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조건으로 ‘통일된 대안 제시’를 거듭 요청했다. 반면 의사들이 의대 증원 관련 공통된 의견을 결집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의 한목소리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대 증원에 공통으로 반대하지만, 이외의 의료정책에 대해선 각 단체의 요구사항이 달라서다.

전공의들은 그간 전공의들이 비정상적인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 조건에 시달려 왔으면서 수련병원의 전공의 착취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의대 교수와 병원계에 대한 불신을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면서 연 기자회견에서 “의사선배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면서도 “전공의들은 시작까지 하며 정책에 반대해왔는데, 의대 교수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설득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조직 내부의 갈등 봉합에 나섰다. 전날 임택 의협 회장 당선자는 비대위 제8차 회의 후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오해를 잘 풀었다면서 “남은 기간 모든 직역이 잘 협력해 이 난국을 잘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 대립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맞춰 단일대로 가는 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피력했다.

이날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료 정책 패기지를 보여 수련 후에도 이 나라 의료에 더는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박 차관과 조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는 “박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료 패기 지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했다.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히려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장관인 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hsj@

세종=김지영 기자 jye@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geo centric**



작품명 **폐플라스틱의 재탄생**

플라스틱의 순환은 지구의 순환이니까
 SK지오센트릭은
 대규모 재활용 단지를 조성하여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새로운 가치로 만듭니다



SK지오센트릭의 **그린픽처**

국민의힘, 또 비대위 체제 간다... 새 원내대표 주목

중진 의원들 조기전대 개최 무계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맡고 빠르면 6월말부터 9월 이전까지 새 지도부 출범에 힘 모을 가능성

국민의힘이 4·10총선에서 참패한 지 6일 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기 수습'에 방점을 둔 '관리형 비대위'에 무게가 실리면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에 관심이 쏠렸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를 마친 뒤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헌·당규상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회가 있는 상태이면 비대위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최고위가 없고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선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비대위가 필요하다"며 "중진 의원들이 한 말들을 참고해 16일 당선자 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다.

새 비대위 성격은 전당대회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



15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총선 당선인 간담회에서 김태호(오른쪽)당선인이 윤재옥(왼쪽 세번째)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당이 위기인 만큼 9월 전까지는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여론 관계자는 "6월 말이나 7월 초로 전당대회를 빠르게 여는 것으로 분위기가 쏠렸다"고 했다.

5선의 권성동 의원이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지도 체제를 빨리 출범시켜서 이를 통해 당을 안정시키고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부분을 파악해서 힘차게 나아갈 필요

가 있다"며 "비대위 연장은 아무 의미가 없고, 새로운 당 대표 중심으로 새로운 당 지도부가 출범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새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비대위'로 역할이 한정된다.

일각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한 성찰이 우선인 만큼 비대위가 당을 수습한 뒤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연 말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

다.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자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기 전대에 대해서는 반대"라면서도 정국 국회 후 12월 전당대회 개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내대표 우선론'이 고개를 들었다. 여론 관계자는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간다고 한들 신임 원내대표가 대행을 맡아 가면 된다"고 했다. 김 당선자 역시 "(신임)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5~8월 정도까지 정국 주

도권을 쥐고 가되, 그 후 정상적인 스케줄 대로 전대를 치렀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당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5선 권영세, 4선 김도읍·김태호, 3선 이철규·추경호 등이 거론됐다. 5월 초 채상병 특검법이 예고된 만큼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여론 관계자는 "통상 개원 전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늦어도 5월 초에는 선거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조국 "제3당 대표로尹 만나겠다"... 속내 복잡한 민주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연일 제3당 대표로서의 존재감 과시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불편한 시선이 감지된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3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만나자"고 공개 제안한 데 이어 15일에도 "윤 대통령은 곧 '데드 덕'이 될 운명인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날에는 "공개회동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원내 제3당 대표'로서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공개적으로 '국정 파트너'

교섭단체 구성 협력 가능성 낮아

로서 지위 인정을 요구한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조 대표가 3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이번 총선 지지의 원동력이 된 '선명성' 유지라는 목적과 동시에 조 대표가 대법원 상고심을 기

다리고 있는 만큼 조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 차원에서 22대 국회 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섭단체 구성 방안을 고민 중이다. 12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8명의 국회의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진보당 3석(정혜경·전종덕·유종오) △새로운미

래 1석(김종민) △기본소득당 1석(용혜인) △사회민주당 1석(한창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시민사회 추천 몫 2석(서미화·김윤) 등을 합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이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본지에 "조국혁신당이야 교섭단체를 만들면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 교섭단체를 만

들어줄 이유가 있나"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주도권 다름 자체도 성립하기 어렵다"며 "의석수 격차가 워낙 많이 나 선명성 차이가 있어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부터 경남 김해 봉하마을 수련관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첫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있다. 여기서 당 지도부 구성과 원내 전략은 물론 교섭단체 구성 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22일부터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민심 감사 행보에 나선다.

정영민 기자 oin@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가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광고문의 (02) 799-6727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 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구감소지역서 집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

〈공시가 4억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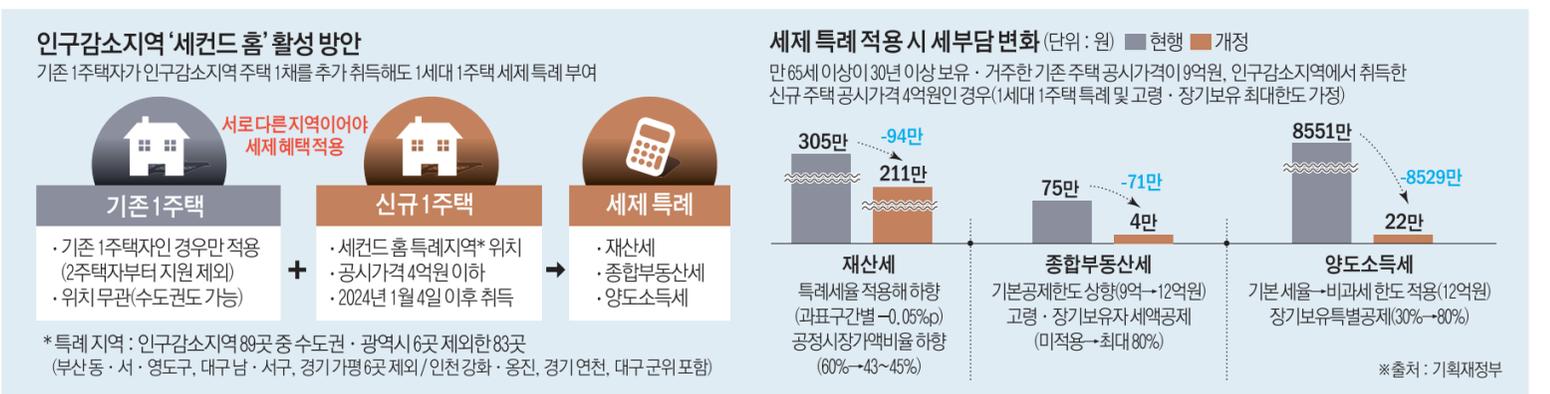
세제 혜택... 세컨드 홈 활성화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현재 1500명에서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중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세컨드홈'을 활성화해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가



재산·양도·종부세 감면 혜택 부산 등 6곳 제외한 83곳 특례 같은 지역서 추가 구매 땀 무효 방문 인구 위한 관광단지 도입

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

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옹진군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

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인구감소 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1조 4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선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

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린다. 비자를 받을 인원은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의 올해 상반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모두 상반기 목표 대비 집행률이 50% 이상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해운산업에 3.5조 추가 투입

저시황 극복·친환경 선박 장려 신조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2조 2030년 수송력 1.4억톤 확충

정부가 국적선사의 저시황 극복과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3조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2030년까지 해상 수송력을 1억 4000만 톤(t)으로 확충하고 2030년까지 국적선사 선대를 200만 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늘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정전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3조 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이다.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확대 투자금액이 2조 원이고 친환경 병커링 인프라 구축펀드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시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브리핑에서 "정부 예산으로 친환경 보조금 1천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이 펀드 형태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선박 공급 증가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저운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인 친환경 규제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를 연

장할 방침이다. 톤세제는 해운사의 영업이익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로 1990년대 유럽 해운국들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한국은 2005년 톤세제를 처음 시행한 이후 5년 단위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톤세제 연장에 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적 원양선사 HMM(옛 현대상선)의 경우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박(적재 공간)을 현재 120만 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 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한다. 미주·유럽 등 기존 핵심 항로 외에 지중해·남북항로에서도 선복을 늘릴 계획이다.

주요 국적선사의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을 유도하고 사업다각화도 지원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 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중소 80곳에 우대금융 1조 지원... 기업당 최대 300억

산업부·우리은행 공동사업

정부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라이징 리더스'로 선정된 80개 우수 중견기업에 1조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지원한다. 기업은 1.0%포인트(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적용해 최대 3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우리은행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라이징 리더스 300'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총 80개 중견기업에 1조 원 내외의 우대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수출과 기술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우대금융을 제공한

우수 기업 '라이징 리더스' 선정 올해 신청 대상 확대·정책 연계도

다. 올해 사업 규모는 지난해(61곳·8076억원)와 비교해 지원 대상은 30% 이상, 지원 금액은 20% 이상 확대된 것이다. 상·하반기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선정되는 중견기업 80곳에는 수출, 기술개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디지털 전환(DX) 등에 필요한 우대 금융이 제공된다. 선정 기업은 최대 300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1.0%p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글로벌 금융서비스 및 중견기업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

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성도 강화한다. 예를 들면 수출 분야 지원 자격으로 '내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사업 참여 중견(후보)기업도 신청 가능하도록 지원 요건을 신설했다. 그간 중견기업의 신청 수요가 높고 지원 성과도 컸던 수출 분야 지원기업 수도 늘린다.

참여 희망 기업은 내달 3일까지 우리은행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지난해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올해는 대상 기업과 지원 규모를 확대해 중견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발대식... "올해 농사 힘차게 시작합니다"

농축협에 260억 규모 농기계 전달

농협중앙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리고 범국민적 농촌일손돕기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2024년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을 15일 경북 의성군에서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범농협 임직원과 박형수 국회의원, 김학홍 경북 행정부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 일손돕기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농협은 전국 1111개 농축협에 260억 원 규모의 농기계를 전달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농촌일손돕기의 범국민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발대식을 개최했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5일 경북 의성에서 열린 '2024년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농협중앙회

다"며 "농협은 인건비와 영농자재비 상승,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 증개 및 일손돕기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올해 인력증개를 통해 영농인력 235만 명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

다. '데이터 기반 영농인력수급 시스템'으로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농협 중심의 농촌일손돕기 추진 체계 강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농협 70개소 운영 등의 지원에 나선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이란·이스라엘, 전면전 위기에... 벼랑 끝 내몰린 경제

이란, 리알화 가치 사상 최저치
테헤란주가 지수 하루 최대 낙폭
이스라엘, 하룻밤 항공비만 1.8兆
이란 국제공항 항공편 전면 취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땀 혼란 가중

이란이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피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한 사상 첫 공격을 감행하고 나서 전면전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 경제도 파탄 위기에 내몰렸다.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이란이 대규모 공격에 나선 후 이란 리알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 대비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다. 이란 리알화 시장 환율 고시 사이트 '본바스트'에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달러·리알 환율은 사상 처음으로 장중 달러당 71만 리알(약 2만3300원)을



돌파했다. 이후 달러당 67만 리알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1월 초와 비교해 리알화 가치는 30%가량 하락했다.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화 대비로도 리알화 가치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2018년 이란 정부는 달러당 4만 2000리알을 공식 환율로 설정했지만, 시장에서는 비공식 환율이 통용되고 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리알화 가치가 곤두박질을 쳤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국 행정부 당시 제재로 지금까지도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공산이 커졌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여파는 증시로도 번졌다.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자 이날 이란 증시 벤치마크인 테헤란주가지수(TEDPIX)는 1만1000포인트 이상 미끄러져 역대 하루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에 테헤란증권거래소는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15일부터 3일 동안 일일 가격 변동 폭을 1%로 낮추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지속된 가자지구 전쟁으로 국방비 지출이 컸던 이스라엘도 경제 위기에 놓였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이란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을 99% 요격했다고 밝혔지만, 천문학적인 방공망 운영 비용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스라엘 매체와 이넷은 이스라엘군재정고문의 발언을 인용해 "이란의 폭격을 막아낸 아이언 돔 등 자국군 방공체계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람 아미나흐 이스라엘군 예비역 준장은 "단거리 요격에 쓰이는 아이언 돔과 별도로 탄도탄 요격용 애로우 미사일은 쓸 때마다 350만 달러(약 48억4300만 원), 중거리 미사일 요격용 데이비드 슬링은 100만 달러 등이 소요된다"며 "하룻밤에 만 40억~50억 셰켈(약 1조4694억~1조 8368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로 전 세계는 바닷길에 이어 하늘길도 좁아지게 됐다. 이스라엘은 봉쇄했

던 자국 영공을 다시 열었지만, 안전 불안감이 커지자 항공사들은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항공편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관문인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은 15일까지 모든 비행편의 운항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영공은 유럽과 인도 또는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항공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여서 항공 교통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바닷길은 이미 홍해에서의 혼란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글로벌 해상 무역의 핵심 경로인 홍해를 장악하면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선박들은 경로가 더 길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아프리카 희망루트로 우회하고 있다. 여기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바닷길 동맥경화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

전아현 기자 cahyun@

“이란, 공습 전 미국과 작전계획 공유”

외신 “영사관 피격 보복 당위성 강조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중간서 조율”
美동맹국 지원 급물살에 우크라 화색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 미국과 미리 작전 계획을 공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지 예루살렘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튀르키예를 통해 보복 관련 계획을 미국에 통보했고, 이를 들은 미국이 다시 이란이 해야 할 조치에 대해 튀르키예에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지난주 미국과 이란 측 모두와 통화하고 이란의 작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한 튀르키예 고위 관리는 AFP 통신에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브라힘 칼린 튀르키예 국가정보국(NIO) 국장에게 이란과의 중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가 1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욕(미국)/AFP연합뉴스

이란은 미국에 미리 알림으로써 중동 확전 위험을 줄이고 시리아 영사관 피격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태가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란의 전례 없는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미국의 동맹국 지원 계획이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마이크 존슨 미하원의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나와 공화당 의원들은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주 지원 패키지를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해당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을 지원하는 950억 달러(약 131조 원) 규모의 대규모 지원책으로, 현재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두 달째 표류 중이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지원 패키지의 긴급성을 강조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원과 상원의 양당 고위급 의원들과 통화했다”며 “이들에게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우리 이번 주 작업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시가급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지원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경종이 됐다”며 “미 의회가 이 중요한 시기에 동맹 강화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남부 타나 토라지에서 15일(현지시간) 구조대원들이 산사태로 무너진 마을에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있다. 13일 자정 무렵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인도네시아는 수백명 명이 산악 지대나 범람원(홍수로 형성된 평야)에 살고 있어 홍수와 산사태 피해 우려가 크다. 타나 토라지(인도네시아)/로이터연합뉴스

천장 뚫린 금값... 美전당포엔 매도자 장사진

판매고객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어
‘강한 경제’ 기반 매입 절박감 없어

국제 금값이 중동 지역 긴장 등에 따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 전당포에서는 금을 팔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금값은 이미 올해 13% 상승해 온스당 2400달러(약 330만 원)를 넘어섰다.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 인플레이션 위험 헤지(회피) 수단으로서 매력도 상승,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앙은행들의 매수세 확대 등이 금값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전날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인한 지정학적 우려로 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 선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졌다.

최근 금값 랠리에 따른 상승 모멘텀은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측면이 있다. 역사적 신고점을 갈아치우는 등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투자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에서는 예외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뉴욕 5번가에 있는 전당포에서는 2월 말부터 금을 판매하려는 고객들의 수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온라인 귀금속 전문 거래업체 블룸버그도 최근 몇 주 새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인들이 금을 내다 파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일부는 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위기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과거처럼 집안 어른들로부터 금 회중시계 등 장신구를 물려받는 전통도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인들의 금 매도 현상 배경에는 ‘강한 미국 경제’가 자리 잡고 있다.

온라인 금투자 서비스 블룸버그의 애드리안 에쉬 리서치 부문 대표는 “서구 경제권, 특히 미국의 상대적 경제력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금을 사들일 절박한 필요성이 없다”며 “서방 투자자들에게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엔 먼 곳에서 일어난 재앙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굴욕... 中, 자본조달 최저

자국 경제·기업 신뢰도 ‘곤두박질’
본토 주식 발행액 역대 최저 기록
글로벌 채권시장서도 투자자 외면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의 자본시장 조달액이 올해 들어 수십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중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곤두박질친 영향이다.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종식됐음에도 금융시스템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의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중국 본토 기업들이 올 들어 9월까지 기업공개(IPO), 유상증자(FPO),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64억 달러(약 8조 8000억 원)를 조달했는데

이는 사상 최저치라고 보도했다.

또 홍콩을 포함한 역외 시장에서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16억 달러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은 25억 달러로 2005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집계됐다.

국제채권시장에서도 중국의 인기는 땅에 떨어졌다. 중국 기업과 은행, 정부기관은 올해 들어 해외에서 260억 달러어치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같은 기간 240억 달러를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FT는 “중국 본토와 그 역내 지역의 주식 자본 시장 활동이 수십 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의 모멘텀 상실이 투자자들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국 자본시장의 침체와 투자자들의 외면은 향후에도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데 따라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경제는 작년엔 5.2% 성장했지만, 3년간의 엄격한 팬데믹 격리 조치가 해제된 후 기대했던 강력한 반등을 실현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달 중국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해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또 중국 상하이와 선전에 상장된 상위 300개 종목 주가를 종합한 CSI300 지수는 올해 3% 상승했지만, 2021년 정점을 찍었을 때와 비교하면 약 40% 하락한 상태다. 이에 중국에 진출하려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활동이 축소됐고 이는 해외 기업들의 중국 증시 입성에도 타격을 미쳤다. 지난달 스위스 농화학그룹 신젠타는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려던 수년간의 계획을 철회했다.

이진영 기자 mint@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대한민국 프리미엄 자산관리
KB GOLD & WISE *the* FIRST
4월 22일 반포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KB금융 최고 전문가들의
특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경험해 보세요



KB GOLD & WISE *the* FIRST 특별한 자산관리 서비스

세무 | 투자 | 부동산 | 신탁 | 금융자문 | 법률자문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766호(2024.04.12.), 유효기간 2024.04.12.~2024.12.31.까지

기술수출, 1분기 저조했지만... 제약바이오 “올해도 훈풍”

LG화학 희귀비만 신약 등 4건 최근 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

후보물질 많고 연구개발 증가로 올 전체 규모 예년과 비슷할 듯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올해 1분기 기술수출이 4건에 그치며 최근 3년간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다만, 후보물질이 많고 연구개발(R&D) 증가로 올 전체 기술수출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1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기업의 기술수출 실적은 총 4건, 규모는 1조9950억 원(비공개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9건, 2조2638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성과와 비

일자	개발사	계약상대	제품명(코드명)	계약규모(원)
1월 5일	LG화학	미국 리듬파마슈티컬스	희귀비만증 신약 LB54640	4000억
2월 22일	알테오젠	미국 머크(MSD)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ALT-B4	5750억
3월 6일	넥스아이	일본 오노약품공업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NXI-101	비공개
3월 25일	아리바이오	중국 제약사	먹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	1조200억

교해 건수는 5건, 규모는 13.4% 줄었다. 올해 첫 기술수출 주인공은 LG화학이다. LG화학은 1월 미국 제약사 리듬파마슈티컬스에 희귀비만증환자를 위한 신약 LB54640을 3억5000만 달러(4000억 원) 규모에 기술수출했다. 계약 선금금은 1억달러(약 1309억 원), 개발·상업화 단계별 성공 시 받는 마일스톤은 최대 2억

5000만 달러(약 2700억 원)다. 매출에 따른 판매 로열티는 추가로 받는다. LB54640은 세계 최초의 경구제형 MC4R(포만감 신호 유전자) 작용제 제1상 결과 용량 의존적 체중 감소 경향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희귀비만증환자 대상으로 미국 임상 2상에 돌입했다. 리듬파마슈티컬스가 기술이전 받아

시험자 모집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알테오젠은 2월 미국 머크(MSD)에 인간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엔자임 ALT-B4 독점권을 부여하는 기술수출 계약을 최대 4320만 달러(약 5750억 원)에 체결했다. ALT-B4는 대용량 항체 약품을 정맥주사(IV)가 아닌 피하주사(SC)로 투약할 수 있게 환자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알테오젠은 기존까지 비독점적이었던 계약을 MSD 독점 라이선스 계약으로 조건을 바꿨고, 계약 변경에 따라 2000만 달러(266억 원)의 계약금을 수령했다.

올해 1분기 가장 큰 규모의 기술수출 성과는 아리바이오가 달성했다. 아리바이오는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중인 AR1001의 중국 독점판매권을 현지 제약사에 주는 계약을 맺었다. 아리바이오는 선금금으로 1200억 원을 올해 중반부터

받고, 향후 임상 개발과 허가 마일스톤, 판매 로열티 등을 최대 9000억 원까지 추가로 받는다. 다만, 중국 제약사 측 요청으로 상대 기업은 특정 시기 이후 공개된다.

넥스아이는 3월 일본 제약사 오노약품공업에 전임상 단계면역항암제 후보물질 'NXI-101'을 기술수출했다.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올해도 국내 기술수출에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도 3분기까지 기술수출 소식이 들리지 않다가 증권당과 레고캠바이오 등에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도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파마에서 국내기업의 기술력을 높이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협력할 자리만 만들어지면 작년보다 더 많은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지배구조, 기업마다 달라...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부적절”

한경협 좌담회서 획일적 기준 반론 우수 지배구조 대해서도 회의적 일각 “투자·영업 등 환경개선 먼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 인센티브 적용 시 ‘우수기업지배구조’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바람직한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할까?’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별로 상황이 다양한데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밸류업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밸류업 인센티브와 지배구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밸류업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재무건전성이 낮으면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며 “이런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최준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수 지배구조

기준이 과연 측정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연구결과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연구가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몇몇 ‘우수 지배구조’라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 개인회사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에 있다고 봤다. 강 세종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를 비롯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가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며 “밸류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투자와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 리카피털 인더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근본적 밸류업 위해 기업환경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강원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낮은 수익성·성장성 이외에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외환시장 규제 완화, 외국인 등록제도 개선 등 금융시장 발전방안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을 밸류업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어떤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와 실증적 검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지배구조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GS25 공사 현장에서 쓰러지면 AI가 ‘비상 알림’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AI가 CCTV 영상 실시간 분석 들고 나오면 결제되는 매장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개점, 리뉴얼 등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편의점 공사 현장에 ‘스마트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순차 도입하는 GS25 스마트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은 폐쇄회로 CCTV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AI가 위험 상황을 자동 분석, 관리자에게 알람을 송출한다.

예컨대, CCTV가 공사 현장 내 화재나 응급 호출, 장시간 쓰러짐, 안전모 미착용, 외부 침입 등을 감지하면 클라우드 AI 플랫폼을 통해 GS25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비상 알람을 보낸다. 이어 분사 안전 관리 책임자가 이를 확인하고 조치하게 된다.

그동안 편의점 공사 안전 관리는 개별 현장마다 시공사가 다르다. 감독원의 역량에 따라 현장별로 안전 관리 수준에 차이가 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GS25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통합 안전관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 △프로세스 간소화 △협력사와 긴밀한 시공 현황 공유 △안



GS25 안전 관리 책임자가 스마트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 GS리테일

전 관리 수준 고도화 등을 확립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GS25는 수년간 상품 패키지 디자인부터 콘텐츠 제작, 매장 운영, 안전관리까지 다방면에 걸쳐 AI 기술을 적용, 업무 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GS25가산 스마트 점은 스마트폰 QR코드를 들고 입장해 원

하는 상품을 들고 나오면 자동 결제되는 AI 솔루션이 적용된 ‘테이크앤고(Take & Go)’ 매장이다. 또 가맹점의 효율적인 점포 관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고객 구매 자료, 상품 판매 자료)를 활용한 ‘AI 편의점 파트너’도 구축, 하반기 중 전국 매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문현호 기자 m2h@

장기렌터카도 車보험 가입 때 운전경력 인정

업계 “렌터카 수요 늘어날 것”

정부가 6월부터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렌터카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이번 정책 변화로 렌터카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본인 명의(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더라도 운전병, 관공서 운전 등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 시 실질적으로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 단위, 시간제를 제외한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렌터카 업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장기렌터카 수요를 늘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선진국보다 렌터카 비율이 낮은 만큼 정책 개선이 이용자 비용 증가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이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따르면 2023년 승용차등록대비 렌터카 비율은 5.73%로 미국 14%, 유럽 7.2%, 일본 6.9%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정됐던 사항으로 정책 변화가 업계에 꽤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통 신차 계약 기간이 3~5년인데 보험 이력이 단절되고 보험료가 초기화되는 것 때문에 망설였던 고객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 변화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통상 2~5년간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며 꼭 끊긴 운전자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지속할 수 있어 장기렌터카 이용자들의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AI' 삼성전자

'빌트인 가전 본고장' 유럽서 맞대결

'투트랙' LG전자

伊 '밀라노 디자인 위크' 참가
삼성, 超연결성 인공지능 강화
비스포크·빌트인 신제품 전시

LG는 초프리미엄·중저가 전략
食문화 라이프스타일 콘셉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에 나란히 참가해 '빌트인 가전의 본고장'인 유럽 시장 공략을 가속한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가전을 중심으로 연결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LG전자는 '초프리미엄'과 '볼륨존' (중저가 시장)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6일간 열리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는 전 세계 23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글로벌 최대의 디자인·가구 박람회다. 디자인 위크 기간에는 격년마다 전 세계 가전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주방 가전·가전 전시회인 유로쿠치나도 함께 열린다.

삼성전자는 약 964㎡(약 292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비스포크 AI' 가전 라인업과 유럽 시장을 겨냥한 빌트인 패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6-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디자인 전시회 '밀라노 디자인 위크·유로쿠치나 2024'에 참가한다. 삼성전자 전시장에 비스포크 시와 유럽 빌트인 신제품이 전시돼 있다. 오른쪽 사진은 LG전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전시존 모습.



'밀라노 디자인 위크·유로쿠치나 2024'에 참가한다. 삼성전자 전시장에 비스포크 시와 유럽 빌트인 신제품이 전시돼 있다. 오른쪽 사진은 LG전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전시존 모습.

키지를 전시한다. 스마트싱스에 쉽게 연결하는 '캠 온보딩', 가전에도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집안의 다양한 제품을 손쉽게 연결·제어하는 '스크린 에브리웨어' 전략을 구현한 시나리오를 선보인다.

또한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7형 터치스크린 기반 '애니플레이스 인덕션',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까지 가전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멀티 디바이스 경험도 소개한다.

유럽 소비자를 위한 빌트인 가전 신제품도 전시한다. 이중 애니플레이스 인덕

션은 올해 신규 라인업 중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출시되는 주력 제품이다. 납작한 사각 형태의 시트 코일을 적용해 화구 경계 없이 상판 어느 곳에서나 균일하게 조리할 수 있다.

이무형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유로쿠치나는 삼성만의 독보적인 AI가스크린과 만나 한층 더 강화된 가전 연결 경험을 유럽 소비자에게 알리는 자리"라며 "비스포크 AI 가전, 신제품 빌트인 키친 패키지와 함께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부터 매스 프리미엄 제품군까지 포함하는 다채로운 빌트인 라인업을 통해, 음식 본연의 가치를 탐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전시관은 483㎡ 규모 공간에 다양한 형태와 가치를 지닌 라이프스타일을 스토리텔링과 함께 경험하는 '식(食)문화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을 컨셉으로 조성한다.

LG전자는 장외전시인 '푸오리살로네(Fuorisalone)'에도 참여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알린다. 밀라노 시내에 운영 중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을 통해

'정밀함의 미학'을 주제로 초프리미엄 통합 키친 솔루션을 제시한다. 쇼룸에서는 밀라노 건축디자인 그룹 M2아틀리에와 협업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와인캐빈'이 처음 공개된다.

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은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통한 초프리미엄 제품군뿐 아니라 지난해 진출을 본격화한 매스프리미엄 제품군까지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저격하며 유럽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 가보니

1만번째 엔진 F404 푸른 화염... K-전투기 독자엔진 가속

설계서 생산까지 소과정 국산화 추진
6세대 엔진 개발엔 자주국방 先대응

"기존에 해외 업체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국산화 기술협력생산에 나섰다면 향후 독자엔진 기술을 확보해 자주국방은 물론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에 진입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나가겠다." (김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 누적 1만 대 생산을 기념해 항공엔진 생산시설을 공개하고 항공엔진사업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운용 등이 요구되는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찾은 경남 창원시 창원1사업장에서 전투기에 탑재하는 항공엔진을 포함해 무인기, 헬기용 엔진, 함정용 엔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탑재되는 발사체 엔진, 유도미사일엔진 등 엔진 생산이 한창이었다. 다양한 엔진을 만

들면서 소품종 다량생산 및 자동화 기술 노하우를 적용했다고 현장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엔진조립동에는 197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초로 생산한 항공엔진 모델인 공군 F4 팬텀(Phantom) 전투기용 'J79' 엔진부터 KF-16에 탑재한 'F100' 엔진,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Boramae)에 탑재하는 'F414' 엔진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엔진 사업의 45년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엔진 실물들이 전시됐다.

1만 번째 엔진인 F404 엔진은 출고 전 최종 연소시험을 진행하는 시운전실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시운전실은 벽 두께만 2m로 방음·방폭·방진 기능을 갖췄다. 거처에 매달린 엔진은 점화하는 순간 굉음과 함께 엔진 뒤쪽에서 푸른 화염이 일직선으로 뿜어져 나왔다.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 시험동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만호 엔진 'F404'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날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친 F404 엔진은 출고 후 공군 전술입문훈련기인 TA-50 골든 이글(Golden Eagle)에 장착된다.

김 창원1사업장장은 "항공엔진의 고

장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재산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번 엔진을 만들 때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와 함께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1만5000파운드급 첨단 항공엔진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은 선진국의 엔진 설계 기술을 통해 일부 부품의 국산화와 조립생산을 국내 생산한 것이라면 향후에는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국산화한다.

6세대 엔진 개발에는 '엔진 일체형 전기시동발전기(E2SG)' 기술이 중요하다. 세라믹 복합재 등 선행 기술도 확보해 자주국방을 위한 미래 전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광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 부장은 "첨단 항공엔진 개발, 나아가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45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인프라, 정부 및 협력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동욱 기자 toto@

삼성, 美 반도체 보조금 9兆 받는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9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다.

미국 정부는 15일(현지 시간)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 달러(약 8조9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의 텍사스 첨단 반도체 공장 투자를 위해 반도체법에 의거,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 5000억 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총 약 450억 달러(약 62조 3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투자 규모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생산 공장에 추가로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 또 패키징 시설과 함께 첨단 연구개발(R&D) 시설을 신축해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전자의 첫 번째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2026년부터 4nm 및 2nm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공장은 2027년부터 첨단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다.

송영록 기자 syr@

HMM "2030년까지 컨테이너 150만TEU·벌크 110척"

종합물류기업 위한 중장기 전략
2045년 넷제로 달성안 검토 중

HMM은 급변하는 해운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2030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고 15일 밝혔다.

HMM은 세계 경제 둔화와 친환경 규제 강화, 해운동맹 재편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고자 이번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컨테이너 사업의 경우 글로벌 해운 열라

이언스 재편에 대응하고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기준 92만TEU(84척)인 선박량을 2030년까지 150만TEU(130척)로 확대한다. 또한, 서비스 네트워크 확장·노선 다변화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에 힘쓴다.

벌크 사업도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수익 확보, 컨테이너 사업과의 균형 성장을 위해 기존 36척에서 2030년 110척으로 선대 확장을 추진한다. 선형별로 경쟁력 있는 선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한편 국내외 화주를 기반으로 영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총 120척인 컨테이너·벌크선 선박이 2030년에는 두 배인 240척가

지 늘어나게 된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력도 높인다.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선박 신조발주, 친환경 연료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넷제로' 달성 시점을 기존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HMM은 디지털라이제이션 추진, 미래 신사업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HMM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2030년 중장기 전략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 뒤, 상반기 중 추후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중부발전 등 33곳 최우수 등급... 동반성장 노력 빛났다

중기부, 동반성장 평가 결과 발표

ESG 경영 진단·기금 조성 온힘
납품대금 올려 거래환경 개선도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기관 선정
'윈윈 아너스' 기관 6곳 포함 눈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금융기관·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84건의 ESG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2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ESG 기금을 조성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면서 수탁기업 338개사의 동행기업 참여를 유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연속 최우수 등급 기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최우수 기간	기관명
4년	한국중부발전(주)
3년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KDN(주)
2년	국토안전관리원, 부산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울산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하고, 8건의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납품대금 총 607억400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중소기업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부산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공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33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13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3년도 동반성장 평가 결과

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우수 등급은 33개 기관, 우수 등급은 37개 기관, 양호 등급은 29개 기관, 보통 등급은 17개 기관, 개선 필요 등급은 18개 기관이 받았다. 3개 기관 중 20개 기관은 지난 평가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중부발전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9년 연속 최고 등급)이라는 영예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난 평가와 비교하면 최우수

(6개)·우수(15개) 등급이 대폭 증가했고, 상당수 기관(45개, 33.6%)의 등급이 상향됐다고 분석했다. 또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 이향상됨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계량 점수가 평균 2.66점 상승해 나타난 결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일방적·시혜적 상생을 넘어선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우수 모델 '윈윈 아너스'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신용보증기금, 인천항만공사, 한국광해공업공단,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환경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아 동반 성장에 앞장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보면 총 9개 중 7개 지표의 평균 점수가 상승했고 특히, 공공기관 상생결제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결제환경 개선' 지표 점수(10점 만점)가 18.3% 상승(5.00점→5.92점)해 가장 크게 올랐다. 세부 평가 지표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분 반영규정 보유 등' 지표 점수(2점 만점)가 23.1% 상승(1.46점→1.79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수 사례가 기업생태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hu 휴온스

Dexcom G6

고혈당을 실시간으로, 저혈당을 사전에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시스템 덱스콤 G6

- ✓ 고혈당, 저혈당 알림과 경고!
- ✓ 손가락채혈(BG)을 통한 보정이 필수적이지 않음
- ✓ 혈당값을 5분마다, 하루 288번 스마트장치로 전송
- ✓ 최대 5명까지 연속 당수치 공유 가능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실구매가 100% 지원

개인용체내연속혈당측정시스템/24개월 이상의 당뇨병 환자의 피부 표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세포 간질액에서 측정된 포도당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포도당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로 자가검사용으로 집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내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농도 측정 결과 수집을 위해 사용한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12021-010-18-0031 (유효기간 24.11.12)

N 덱스콤 G6

중동發 고환율·고유가 탓에 경영 부담 커지는 중소기업

유통·제조 업체들 수익성 악화
국제유가 올라 단가 상승 '불안'

중동 정세 악화로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무력 공격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 피해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8.60원(0.63%) 오른 1384.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재료를 수입해 유통·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한다.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싶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에 울

리기가 쉽지 않다.

국제유가 상승세도 부담이다.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으로 과거와 달리 원가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됐지만, 중소기업 전반의 비용 구조를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창호 제조업계 관계자는 "2021년 1kg당 3000원이던 알루미늄 가격은 최근 5000원대인데 다음 달이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환율·고유가 등 영향에 원가 비용 커지면서 입찰할 때 단가 높아지는 등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은 제조, 운임비 등 투입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중소제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정책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대·중·소 유통기업, 미래 향해 동행"

중기중앙회 '유통 상생 대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은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제4회 유통 상생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오기용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유통 상생 대회'는 유통 분야 민간 자율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우수 기업을 포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유통 분

야 상생협력 우수성과를 달성한 6개 기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특히 행사에서는 중기중앙회와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14개사, 중소유통인이 참여해 상생에 대한 의지를 담아 "함께 기회를 잡고, 미래를 향해 동행하겠습니다"는 문장을 함께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판로를 찾지 못하거나 비용 부담으로 성장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유통 상생협의체와 중소유통상생위원회 등 민간 차원의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해 유통 분야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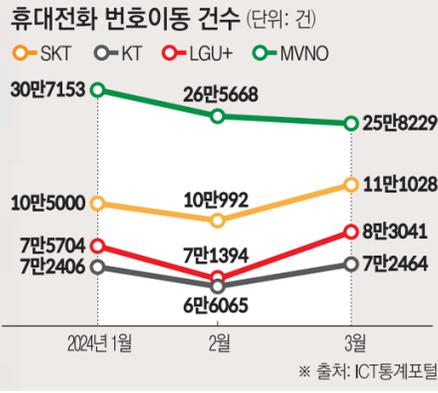
〈이동통신사 번호이동〉

약발 안먹히는 전환지원금... 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이동통신사를 옮길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번호이동 건수 등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전환지원금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을 거라 보고 있다.

16일 이동통신사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전환지원금이 시행한 지 한 달을 맞았다. 지난달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사가 고객에게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 지급할 수 있게 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지난달 16일 이동 3사는 전환지원금을 처음 공시했다.

정부에서는 통신사간 경쟁이 불어날만한 번호이동 및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 번호이동 효과는 미미했다. ICT 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번호이동 수는 52만 4762건으로, 1월 56만 63건과 2월 50만 4119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4월 통계가 나와 본격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일선 휴대전화 판매 현장에서도 "전환지원금이 혜택이 크지 않아 추천하지 않는다", "혜택이 적어 고객의 관심이 덜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책 시행 한 달째 효과 '미미'
번호이동 52만건 큰 변화 없어
"혜택 크지 않아... 고객들 외면"
알뜰폰 번호이동은 되레 줄어

통신사가 제시한 전환지원금 혜택이 크지 않고,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길어졌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고가 요금제를 써야 최대 3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새 휴대전화를 사야 전환지원

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한 달 간 중저가 라인인 갤럭시 A 시리즈를 제외하고 소비자의 눈길을 끌만한 새로운 모델 출시도 없었다.

번호이동 규모는 제자리 걸음인 와중에도, 알뜰폰은 번호이동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 지난달 알뜰폰 번호이동 건수는 25만 8229건으로, 1월 30만 7153건 대비 15.9% 감소했다. 순증 규모만 따지면 2월보다 30.5%, 1월보다 41.9% 감소했다. 이를 두고 전환지원금이 이동 3사 체제를 깨고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정부

'여소야대' 통신정책 기로
"가입유형 따라 차등지원 안돼"
野, 단통법 개정 부정적 입장
정부, 정책변화 가능성 말아껴

정책이 모순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와 관가에서는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전환지원금 정책이 동력을 잃을 거라 보고 있다. 그간 야당은 해당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해왔

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단통법 제 3조 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4·10 총선 결과, 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이 의원은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됐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 및 제 4 이동사 진입 추진 등 정부의 통신 정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22대 국회가 들어서지 않은 만큼,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2일 '인공지능(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간담회'가 끝나고 "정부의 통신 정책이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오늘은 클라우드 관련 간담회"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자체는 여야 간 의견이 동일한 터라 22대 상임위가 꾸려지면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과 함께 단통법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우리 기자 inglass@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출범에... 전문가 "자본금 최소 1조원 필요"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엑스)을 두고 최소 1조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지난 1월 우여곡절 끝에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내달 4일까지 주파수 할당대가(4300억 원) 중 10%인 430억 원을 납부하면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새 출발 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 스테이지엑스는 3년간 6128억 원가량을 설비구축에 투자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경영적자를 이어가고 있어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주최로 열린 '28%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은 최소 1조 원이 필요하며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충과 투자 이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을 3만 5000원대로 가정해도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려면 238만 명의 가입자가 필요하다"면서 "과거 LG유플러스가 통신사업을 개시한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마케팅비로만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가입자 총 428만 명을 확보했는데, (스테이지엑스가) 동일 면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5G에선 더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고

스테이지엑스 제시한 매출 1兆 가입자 238만명 확보해야 가능
과거 LG유플 마케팅비만 1.5兆
'4000억 정책금융'에 우려 시선

결국 설비투자, 마케팅비가 천문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스테이지엑스 관련 우려는 이미 상당 수준을 넘어선 상황인데, 이는 최대 4000억 원 정책금융 등 역대급 수준의 정부 지원 속 이동통신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에 약속한 자본확충과 투자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잘못된 지원'으로 도덕

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스테이지엑스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조건 부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권 부여 단계에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부과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스테이지엑스의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 조기 회수 등 이른바 '떡튀'를 방지하고, 연차별 매출 및 영업이익 등 정책금융 대출금 회수 기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신규사업자 진입의 조건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연도별 통신망 의무 구축 수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도별 할

당대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로밍·설비제공 지원, 정책금융 지원, 세액공제 혜택 등을 중단하고 할당 주파수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주주는 일정 기간 이상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28% 대역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대역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며 "어떤 정책이든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이은주 기자 letswin@

코딩교육 의무화시대... 넥슨 무료학습 '비코' 뜬다

'텍스트 코딩' 기초부터 심화까지
700여 문제 난이도·유형별 구분
직접 풀며 자기주도적 학습 가능

넥슨의 무료 코딩 교육 통합 플랫폼 '비코(BIKO)'가 2025년 초·중·고 코딩 교육 의무화를 앞두고 국내 교육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넥슨과 비브라스코리아가 만든 BIKO를 통해 프로그래밍의 토대가 되는 컴퓨팅 사고력 함양과 함께 '텍스트 코딩'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배울 수 있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비브라스코리아는 양질의 프로그래밍 학습 콘텐츠가 부족한 국내 교육 현실에 주목해 누구나 쉽게 코딩을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2월 출시했다. BIKO에서는 'C언어', 'Java(자바)', 'Python(파이썬)' 등 실용성 프로그래밍 언어를 쉽고 체계



무료 코딩 학습 플랫폼 '비코'.

사진제공 넥슨

적으로 배울 수 있다.

BIKO는 세분화된 단계별 커리큘럼으로 기존 '블록코딩' 중심의 수업 운영을 추가 보완하고, 학교 현장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실용적인 교육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사와 학생간 코딩 수업 운영이 가능한 '클래스(Class)' 기능을 갖춰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학생들의 학습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개별 학생 및 전체 반의 진도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백신중학교 정용열 정보교사(한국정보교사연합회 회장)는 "청소년을 위한 텍스트 코딩 학습 플랫폼인 BIKO는 교육부의 AI·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과 함께 초·중등 정보 교육 현장의 맞춤형·개별화 수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BIKO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국내외 다양한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출제된 총 700여개의 문제를 난이도와 유형별로 나눠 풀어보고 사이트 내 '보고 배우기' 기능을 활용해 주제와 문제별 해설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며 학습할 수 있다. BIKO가 국내 최초로 내놓은 '빈칸 찢린지' 유형 문제는 코딩 문법에 대한 지식 없이도 앞·뒤 코드를 통해 정답을 도출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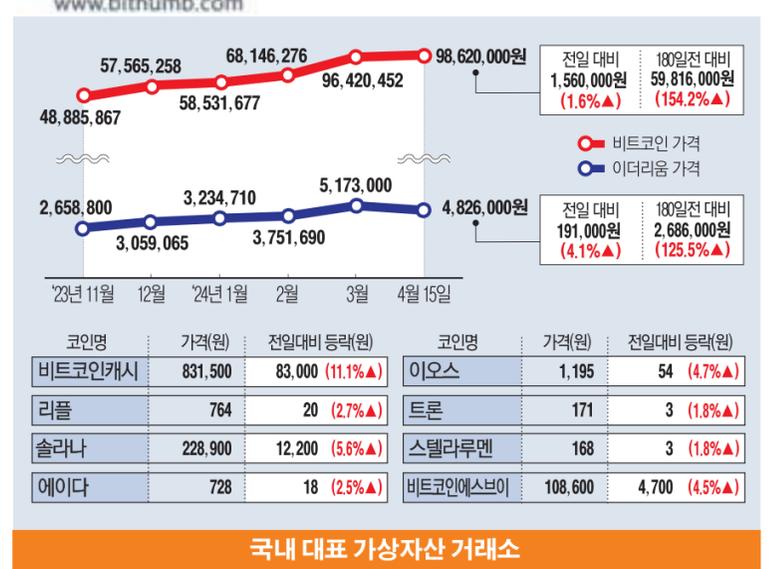
있어 '텍스트 코딩' 입문에 효과적이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넥슨과 넥슨재단은 코딩 교육 저변 확대

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빗섬 지수 (2024년 4월 15일 17:00, KST)



18조 방사성의약품 시장... K-제약바이오도 군침

글로벌 빅파마 경쟁체제 맞서 SK바이오팜, 신약 개발 총력
 퓨처켄, 치료제로 영역 넓혀
 "기업협력 통해 기술 확보 온힘"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방사성의약품 시장이 무르익고 있다. 태동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성과를 낸 치료제가 등장하며 글로벌 빅파마들은 앞다투어 시장 선점에 나섰다.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개발 움직임도 활발하다.

15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레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방사성의약품 시장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전 세계 방사성의약품 시장은 2022년 52억 달러(약 7조 원) 규모에서 10년간 연평균 10.2% 성장해 137억 달러(약 18조 원) 규모까지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성의약품은 항암제 개발 분야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항체약물접합체(ADC)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중앙표적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리간드에 방사성핵종을 탑재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

미국 FDA 승인 주요 방사성의약품

개발사(제품명)	바이엘(조피코)	노바티스(루타테라)	노바티스(플루빅토)
적용증	전립선암	신경내분비종양	전립선암
허가시기	2013년	2018년	2022년

멸시키는 방식이다. 과거 진단 목적으로 더 많이 쓰였지만,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가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었다. 플루빅토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2022년 3월 미국 식품의약품(FDA) 승인을 받은 방사성의약품이다. 출시 첫해 2억7100만 달러(약 3600억 원), 지난해 9억8000만 달러(약 1조3000억 원) 매출을 올렸다. 2028년엔 38억7000만 달러(약 5조 원)까지 성장해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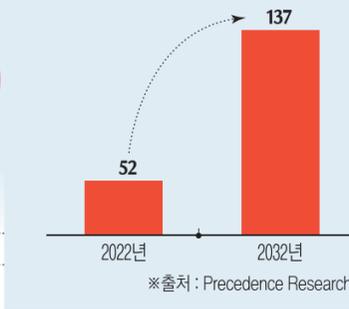
글로벌 빅파마들은 인수·합병(M&A)

전략으로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해 포인트바이오파마와 레이즈바이오를 각각 사들인 일라이릴리와 BMS에 이어, 올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가 퓨전파마슈티컬스를 인수하면서 경쟁에 합류했다.

국내 바이오기업들도 방사성의약품의 시장성에 매료됐다. SK바이오팜이 3대 신규 모달리티(치료접근법) 중 하나로 방사성의약품 치료제를 설정했다. 한국 원자력의학원과 손잡는 등 국내외 파트너십을 통해 신약개발부터 핵심 재료 제조·공급까지 포괄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벤처들은 후발주자의 한계를 기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시장 규모 (단위 : 억달러)



술력으로 뛰어넘겠다 각오다. 퓨처켄은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에서 치료제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회사는 불소-18 동위원소를 의약품 후보물질에 표지하는 원천 특허 기술을 파킨슨병 진단제 '피디뷰'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제 '알자뷰'의 상용화에 성공했다. 현재 전립선암 진단제 'FC303'과 전립선암 치료제 'FC705'를 개발 중이다.

FC705는 국내에서 임상 2상, 미국에서 임상 2a상에 들어갔다. 회사 측에 따르면 FC705는 주사 후 혈액 내 존재 시간이 다른 의약품보다 길고 결합력이 우수해

전립선암에 더 많이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 임상 1상에서 플루빅토 대비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퓨처켄 관계자는 "FC705는 중국 기술이전을 위해 지난해 4월 텀시트(Term Sheet) 계약을 체결하고 본계약을 위한 HTA 모회사의 승인만 남은 단계"라고 말했다.

압타머사이언스는 연세대의료원과 압타머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 방사성핵종 표적전달 플랫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압타머의 높은 표적 친화도를 활용한 것으로, 주력 신약개발 프로그램 압타머약물접합체(ApDC)을 방사성의약품 치료제 분야로 확장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미 진단용 방사성핵종 표지 기술을 확보하고 다수의 동물모델에서 압타머에 표지된 방사성핵종의 선택적 종양표적화를 규명해 치료용 방사성핵종을 표지할 기반을 만들었다. 다양한 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조기 기술이전 등 글로벌 사업기회를 확대가 목표다. 압타머사이언스 관계자는 "연세대의료원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기술을 확보했으며, 플랫폼을 확립한 후 치료제 개발까지 나아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신규 기전으로 개발 속도... 안전한 탈모치료제 나오나

탈모환자 증가에 다양한 기전의 탈모 치료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치료제의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미충족 수요가 높아졌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도 부작용을 개선한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새로운 기전의 탈모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시장 전망도 밝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탈모치료제 시장은 2021년 10조 원 규모에서 매년 8.2%씩 성장해 2028년에는 16조 원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받은 탈모치료제는 전문의약품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일반의약품 미녹시딜이 있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탈모를 일으키는 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 생성을 저해

피나스테리드 등 국내 치료제 부작용 탓에 여성 처방 어려워
 안전성 높은 제품 상용화 주력

해탈모를 막는다. 미녹시딜은 혈액순환을 도와 영양 공급이 잘 되게 해 머리카락이 자라게 한다. 하지만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성기능 저하, 우울감 유발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경우 큰 효과가 없고 기형아 출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미녹시딜은 주로 여성에 처방되며 투약 중단 후 재발이 단점이다.

국내 기업들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탈모치료제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윈트(Wnt) 표적 탈모치료제 JW0061을 개발 중이다. 이 물질은 피부와 모낭 줄기세포에 있는 Wnt 신호전달경로를 활성화해 모낭 증

기업명	후보물질	작용 기전	※ 출처: 각사	
			개발 단계	개발 단계
JW중외제약	JW0061	Wnt 신호전달경로를 활성화해 모낭 증식·재생 촉진	비임상	비임상
올릭스	OLX104C	siRNA 플랫폼으로 안드로겐 수용체 발현 억제	임상 1상	임상 1상
넥스트젠 바이오사이언스	NXC736	면역체계의 과발현을 억제하고 모낭 공격 방지	임상 2상	임상 2상
프롬바이오	미정	줄기세포의 다분화능과 자기복제능을 활용한 모발 생성	후보물질	발굴 중

식과 모발 재생을 촉진 시킨다. 모근 끝에 있는 Wnt 신호전달경로는 배아 발생 과정에서 피부 발달과 모낭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발의 성장과 유지를 조절하는 모유두 세포 증식에도 관여한다. 회사 측은 동물실험에서 우수한 모발 성장과 모낭 신생성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올릭스는 최근 세계모발연구학회에서 탈모치료제 OLX104C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OLX104C는 올릭스의 원천 플랫폼 자가전달대칭 siRNA 기반 남성형 탈모의 원인인 안드로겐 수용체 발현을 줄여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 반응을 억제한다. 두피 국소 투여를 통해 모낭에만 고농도로 작용한 후 빠르게 분해돼 전신 노출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작년 3월 호주에서 임상 1상을 시작해 환자 투약을 진행 중이다.

넥스트젠바이오사이언스는 원형 탈모치료제 NXC736의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원형탈모증은 면역체계가 모낭을 공격해 나타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NXC736은 스프링신-1-포스페이트 수용체 1&4를 표적하는 선택적 길항체로 자가면역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원형탈모증 동물모델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하고, 건강한 성인 대상의 임상 1상에서도 안전성과 약력학적 측면에서 효과를 확인했다.

프롬바이오는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활용한 탈모치료제를 개발한다. 회사에 따르면 지방유래 줄기세포로부터 분화시킨 진피모유두세포를 털이 자라지 않은 누드마우스에 주입한 후 관찰한 결과, 진피모유두세포와 유사하게 털이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올해 비임상에 진입할 예정이며, 2025년 인체 임상 진입이 목표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제약사 5곳, 1분기에도 실적 '맑음'... "2분기도 매출 성장 기대"

(매출 상위)

유한양행, 매출 기대치 하회
 한미약품, 영업익 17% 성장
 '역성장' 녹십자는 적자 예상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낸 국내 매출 상위권 5개 제약사들이 올해 1분기에도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제약업계와 증권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약업계 매출 1위를 기록한 유한양행의 1분기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은 4394억원, 영업이익은 67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인 매출 4884억원과 영업이익 228억원을 각각 9%, 71% 회회할 전

망이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매출 성장이 제한된 가운데 연구개발(R&D) 비용과 광고전선비 등 판매 비용이 증가했다. 실적은 2분기부터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며 "하반기 폐암 1차 치료제 렉라자 병용요법이 미국·유럽에서 승인 출시한다면 마일스톤 유입과 함께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종근당의 1분기 매출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SK증권은 종근당의 올해 1분기 실적을 매출액 3618억원, 영업이익 262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기존 주력 품목의 매출 고성장

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덱스, 펙수클루, 케렌디아 등 국내외 제약사들과 공동판매 계약 확대를 통해 케이캡 매출 감소분을 넘어선 매출 성장기 기대된다. 다만, 영업이익은 CKD-510 계약금 및 케이캡의 높은 수익성을 감안했을 때 감소가 불가피하겠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역성장'했던 녹십자는 올해 1분기까지 적자가 예상된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C녹십자 실적 추정치는 연결기준 매출액 3592억원, 영업손실 105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8% 증가하겠지만, 영업손실은 전년(136억 원)에서 소폭 개선된

105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혈액제제 알리글로의 미국 출시를 앞두고 현지 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 GC바이오 파마USA 판매비 증가 등으로 녹십자의 실적 전망치가 최근 대폭 하향 조정됐다. 다만, 알리글로가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 이란 평가다.

한미약품은 1분기 견조할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한미약품의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980억원, 영업이익은 701억원으로 내다보았다. 지난해 1분기 대비 매출액은 10.2%, 영업이익은 17.0% 성장한 수치다. 박재경하나

증권 연구원은 "이번 분기는 북경한미를 비롯해 주요 품목의 매출 성장이 호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미약품은 올해 애플투스에 이전된 투스페티닙의 마일스톤 수령과 비만·대사 파이프라인 본격화 등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제약의 경우 외형은 다소 줄어도 수익성은 늘어날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155억원, 영업이익은 303억원으로 예상했다. 전년 동기과 비교해 매출액은 12.8%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5.6% 늘 전망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

하이마트·전자랜드, 모객 전략이 성패 갈랐다

가전양판점 투톱인 롯데하이마트와 전자랜드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작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반면 전자랜드는 사상 처음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양사 모두 작년 한 해 동안 수익성 제고를 위한 체질개선에 힘썼으나 모객 전략이 성패를 가른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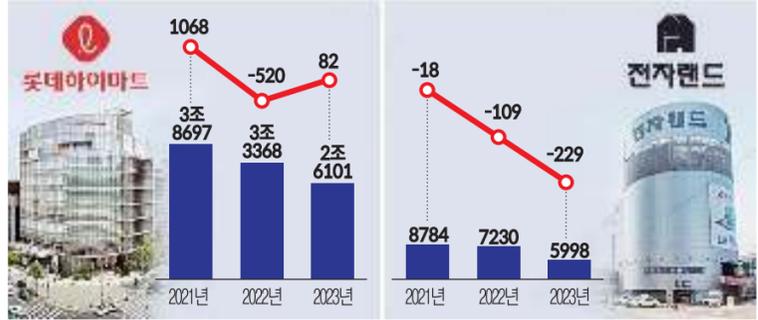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자랜드 운영사인 SYS리테일의 작년 매출액은 59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29억 원으로 1년 전(109억 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작년 말 기준 SYS리테일의 자본총계는 -195억 원을 기록,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SYS리테일은 2012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져, 매년 재무상태가 악화일로다. 반면 롯데하이마트는 작년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2조 61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 감소했다. 다만 8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

하이마트 영업익 82억 흑자전환
매출액은 작년보다 22% 감소
희망퇴직 단행·점포 리뉴얼
전자랜드 운영사 매출 17% '뚝'
사상 처음 완전자본잠식 빠져
업계 최초 유료회원제 도입

자전환했다. 창사 이래 2022년 처음 적자를 낸 이후 바로 1년 만에 회복하는 저력을 발휘한 셈이다.

양사 모두 지난해 체질개선에 주력했으나, 결과적으로 롯데하이마트의 전략이 성공방정식에 가까웠다는 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비효율 소형 점포를 지역 대형 점포로 통합하며 효율화를 추진했다. 작년 말까지 43개 점포를 리뉴얼했고, 이들

롯데하이마트·전자랜드 3개년 실적(단위: 억원) ■ 매출액 ○ 영업이익 ※ 출처: 금융감독원



점포 매출은 리뉴얼 이전보다 20% 이상 늘었다. 또한 가전 교체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가전 클리닝 등 케어서비스 담당 '홈 난쟁해결 센터'를 설치하는 등 모객 전략을 새로 짰다.

전자랜드도 작년 하반기 김형영 대표를 신규 선임하고 업계 최초로 '유료회원제'라는 배수진을 쳤다. 연회비 기반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을 목표로 삼았고, 유료회원 전용 매장 '랜드500'도 도입했다.

전자랜드는 신규 출점 대신 작년 5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기존 26개 점포를 랜드 500으로 탈바꿈했다. 유료회원제 매장은 순항하고 있지만, 실적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을 두고 업계는 가입비 부담이 모객에 허들이 됐다는 분석이다. 전자랜드가 유료회원 등급 스탠다드(연 3만 원), 프리미엄(연 5만 원) 등 2종에 더해 최근 라이트(연 1만 원) 등급을 신설한 것도 그런 이유로 여겨진다.

양사는 올해도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롯데하이마트는 가전양판점에서 벗어나 '고객 케어·가전라이프 전문기업'으로 도약,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갈 방침이다. 모객 효과를 입증한 홈 난쟁해결 서비스의 상품과 품목을 확대하며, 올해 약 70여 개 점포를 카테고리 전문 매장 및 상담형 전문 매장으로 리뉴얼한다. 전자랜드는 현재 109개 매장 중 20개 이상을 폐점하는 등 점포 효율화에 나선다.

또 전국매장의 40%를 랜드500으로 바꾼다. 올해 1분기 랜드500 26개 점의 총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하는 등 시장 안착 속도가 빠르다는 판단에서다. 재고자산 효율화에도 나선다. 상품성이 높은 리퍼비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전 지점과 물류센터 재고를 등급화해 판매 가능한 재고 상품을 확보해왔다.

유승호 기자 peter@



대구신세계 푸드마켓 새 단장... "초신선 식재료 총집결"
신세계백화점은 대구신세계 식품관 내 슈퍼마켓인 '신세계푸드마켓'이 리뉴얼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신세계푸드마켓은 '초(超)신선' 프리미엄 식품으로 채워 경쟁력을 높이고, 맞춤형 식재료 손질·소분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고객 편의에 초점을 맞췄다. 대구·경북의 로컬 식재료부터 도심에서 만나보기 어려웠던 초신선 해산물과 집밥 등과 세계 각국의 식료품까지 아우르는 프리미엄 슈퍼마켓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리뉴얼을 기념, 오픈 당일(15~28일) 과일과 한우, 수산물, 그로서리 등 인기 먹거리를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21일까지 성주 참외와 청도 미나리, 대구축협 브랜드인 대구팔공참한우 등 대구·경북 지역 특산물 행사도 한다.

치솟는 외식물가에... 뷔페형 식당 인기

고정 가격에 다양한 음식 즐겨
빽스·애슬리 매출 매년 성장세

최근 고물가로 소비자 외식비 부담이 늘자, '뷔페형 식당'이 인기다. 고정 가격에 다양한 메뉴를 양껏 즐길 수 있어, 가성비 있는 외식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당시 폐점수순을 밟던 뷔페 식당이 제2의 부흥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4%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3.1%보다 0.3%포인트 높다. 외식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현상은 34개월째다. 외식물가가 고공 행진하자, 소비자들은 가성비 뷔페형 식당인 '빽스', '애슬리'로 발길을 돌렸고 이 덕분에 운영 기업의 매출도 늘고 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빽스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다. 지난해 빽스의 점당 매출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에 비해 약 137% 늘었다. 이

랜드이츠가 운영하는 애슬리 매출도 2020년 주춤했지만, 이후 매해 가파른 성장세다. 애슬리 매출은 직전 해보다 △2021년 89% △2022년 135% △2023년 150% 각각 증가했다.

뷔페형 식당이 다시금 인기인 것은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빽스는 매 계절마다 신메뉴 출시해 샐러드부터 바비큐, 해산물, 파스타까지 약 150여 종을 선보이고 있고, 무제한 와인과 맥주를 선보이는 와인&퍼어링존도 운영하고 있다.

앞서 빽스는 2022년 전체 매장을 프리미엄 타입으로 리뉴얼했다. 애슬리도 고급화 전략으로 기존 클래식·W·윈즈 3가지 콘셉트 매장을 '애슬리퀸즈'로 일원화했다. 기존 80여 종의 메뉴를 200여 종으로 늘렸다. 10만 원을 훌쩍 넘는 호텔 뷔페 가격과 비교하면 이들 업체 가격은 합리적이다. 빽스는 평일 점심 3만 7900원, 주말 4만 7900원, 애슬리퀸즈는 평일 점심 1만 9900원, 주말 2만 7900원이다.

문현호 기자 m2h@

쿠팡 이탈자 '이삭줍기' 나선 이커머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 멤버십'의 월 회비를 기습 인상하자, 이커머스업계가 멤버십 구독료를 낮추거나 고객 혜택을 강화하는 등 틈새 전략에 분주하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비를 58%나 올리면서 소비자 불만이 터져 나오자 '이탈 고객'을 잡겠다는 의도가 짙다.

15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과 옥션은 다음 달 그룹 통합멤버십 신세계유니버스크럽 가입비를 연 3만 원에서 4900원으로 인하한다. 할인율은 83.7%다. 상반기 최대 쇼핑행사인 '빅스마일데이'에 맞춘 한정 행사다.

다만 이번 혜택은 그동안 신세계유니버스크럽에 가입한 적이 없는 신규 가입자가 G마켓 또는 옥션에서 가입할 경우만 해당한다. 이 기간 가입하면 '멤버십 1년 무료 연장' 혜택도 받는다. 사실상 4900원으로 2년 간 신세계유니버스크럽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신세계유니버스크럽에 가입할 경우

와우 멤버십 월 회비 58% 인상
소비자 불만 나오자 틈새 전략
G마켓·옥션 연회비 84% 할인
컬리, 이달 말 '컬리멤버십 워크' 네이버플러스, 무료 체험 기간↑

이마트, G마켓, SSG닷컴, 스타벅스,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면세점 등 6개 계열사에서 5%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파격 할인한 유료멤버십 혜택을 신규 고객을 유입, 확실한 락인(Lock-in)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산이다.

'월 구독료 1900원'의 파격가를 선보인 컬리는 이달 22일~28일 '컬리멤버십 워크'를 연다. 유료 회원만을 상대로 상품할인 기획전을 여는 것인데, 이 기간 신규가입 고객에겐 첫 달 구독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컬리는 향후 멤버십 혜택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사업 정관에 교육서비스업을 신규 추가한 점도 주목된다. 2022년 인수한 여성커리어 개발 커뮤니티 헤이조이스 콘텐츠를 본격 활용, 유료회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컬리는 올해 초 온라인교육 플랫폼 꾸구와 협업, 유료회원에게 자녀교육 특강 등도 진행했다.

네이버도 이날 네이버쇼핑 고객 유치를 위해 유료멤버십 네이버플러스(구독료 월 4900원) 무료 체험 기간을 확대했다. 이에 5월 31일까지 신규 가입자에게 3개월 무료 체험 혜택이 제공된다. 또 7월 15일까지 석달 동안 모든 멤버십 고객에게 배송비 3500원 할인 쿠폰이 매일 지급된다. 최근에는 편의점 GS25와 손잡고 혜택을 강화했다. GS25에서 네이버페이로 상품을 결제하면 최대 20%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편의점 CU에 이어 GS25까지 소비자 혜택과 편의를 늘린 셈이다.

유승호 기자 peter@

서울우유 "A2 우유에 80억원 투자... 소비자 만나볼 시간"

(5년간)

체세포수 1등급·세균수 1A 원유

"서울우유는 2020년부터 약 80억 원을 투자해 A2(에이투) 형질 검사를 하고 전용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원유를 더 좋게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A2+(에이투플러스) 우유가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A2 우유로의 전면 전환을 통해 또한 걸음 앞서가겠습니다."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장은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A2우유 출시회에서 향후 비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새로 출시한 A2+우유는 A2전용 목장에서 분리·집유한 100% 국산 A2우유에 서울우유의 차별화 핵심 가치인 체세포수 1등급, 세균수 1A 원유에 EFL(Extended Fresh Life) 공법까지 더한 프리미엄 우유다.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서울우유 A2+ 우유 출시회'에서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장이 'A2+(플러스) 우유'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우유

용량은 180ml, 710ml, 1.7L 등 세 가지다. 710ml 제품 대형마트 판매 가격이 3580원으로, 기존 '나100% 우유' 1L가 2980원인 것에 비해 용량은 적고 가격은 비싸다.

A2+우유는 A 모양을 형상화한 용기와 A2를 심볼화한 디자인으로 소비자 각

인 효과에도 힘을 줬다. 또 광고와 제품소개, 이벤트 참여하기 등 정보전달을 위해 QR코드를 삽입하고, 제품 캡 상단 점자 표기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편리한 음용을 위해 스트로우를 실링도 적용했다.

서울우유는 2030년까지 A2원유 비율을 100% 교체가 1차 목표다. 올해 말까지 일평균 약 1900톤(t)의 원유 중 3%인 50톤을 A2우유로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우유 조합원의 모든 목장에서 A2원유가 생산되도록 전라인을 A2우유로 전환할 방침이다. 최경천 서울우유 상임이사는 "앞으로 A2 우유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유업계 생존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2030년에는 서울우유가 생산·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A2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진짜 하나뿐인 내 편 맞네!”

소상공인과 함께 울고 웃으며
늘 곁에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함선경 매니저

정혜리 대표

이호찬 팀장

세종시 조치원읍 '리리' 팀

소상공인의 하나뿐인 내 편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금융비용 절감 지원

실패 없는 도전을 위한
청년 창업 컨설팅 지원

지역과 상생을 위한
지역 상권 살리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두번 번다더니... ‘엔화 미국채’ 쪽박찰라” 일학개미의 고심

日 증시서 불타... 올들어 4억달러 넘게 순매수

#자영업자 이모(45) 씨는 지난해 일본 주식시장에서 ‘아이셰어즈 미 국채 20년물 엔화 헤지 ETF’를 샀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미국채 금리는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엔화는 곤두박질치고 있어서다. 그는 “환율이 다시 떨어질 것(엔화 강세)으로 생각해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했다가 발목이 잡혔다”면서 “더 늦기 전에 손절매를 할까 고민 중이다”라고 했다.

엔자가 길어지면서 엔화로 미국채를 산 ‘일학개미’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엔화 가치와 미국 국채 가격이 동시에 올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 이러한 투자법이 최근 유행했다. 하지만 실제 지표들은 정반대로 나오면서 오히려 최근 손실이 커졌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학개미는 올해 들어 이달 12일까지 일본증시에서 4억4402만 달러 넘게 순매수했다. 지난해 총 순매수 규모(6억3278만 달러)의 70% 가 넘는 규모다.

올해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4개는 일학개미 ‘스테디셀러’로 꼽히는 미국채 엔화 헤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차지했다.

일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것은 ‘아이셰어즈 미 국채 20년물 엔화 헤지 ETF’로 순매수 금액은 3억2765만 달러

美 금리인하때 엔화·미국채 ‘쑥 환차익·인버스’ 투자 몰렸지만 제5차 중동전쟁 우려에 시장급변 美 국채 하락안정으로 11% 손실 엔화도 34년만에 최저수준 ‘뚝

에 이른다. 순매수 상위 2위는 ‘아이셰어즈 코어 7~10년 미국채 엔화 헤지 ETF’가 차지했다. 같은 기간 2578만 달러어치 순매수했다.

특히 ‘아이셰어즈 미 국채 20년물 엔화 헤지 ETF’는 엔화로 만기 20년 이상의 미국 초장기채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향후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 상승과 더불어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미국 장기 국채가격이

올해 일학개미 순매수 상위 10종목 (단위: 달러) ※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 15일 기준 ■ 미국채 엔화 헤지 ETF

아이셰어즈 미 국채 20년물 엔화 헤지 ETF	3억2765만
아이셰어즈 코어 7~10년 미국채 엔화 헤지 ETF	2578만
도쿄일렉트론	965만
어드반테스트	642만
넥스트 펀드 닷케이225 2배 인버스 ETF	428만
아이셰어즈 S&P 500 엔화 헤지 ETF	402만
아이셰어즈 3~7년 미국채 엔화 헤지 ETF	376만
라쿤 ETF 닷케이225 2배 인버스	360만
넥스트 펀드 닷케이225 ETF	348만
스크린홀딩스	326만



하락(수익률 상승) 안정되면서 11%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 중이다. 특히 한국인 투자자는 환율하락으로 인한 환손실까지 추가로 떠안게 됐다.

이 외에도 아이셰어즈 S&P500 엔화 헤지 ETF(402만 달러)와 아이셰어즈 3~7년 미국채 엔화 헤지 ETF(376만 달러)도 순매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들 상품에 많이 투자한 배경은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란 전망이 우세해서다.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미국 국채 금리

도 하락하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특히 일본 증시에 상장된 미국 국채 ETF를 산 것은 엔화 가치 상승까지 함께 노렸기 때문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양국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 가치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때문에 일부러 엔화 가치 변동성에 노출된 미국 장기채 ETF를 사서, 환차익까지 노렸다.

하지만 ‘제5차 중동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이날 한때 엔·달러 환율은 153.97엔까지 올랐다. 엔화 가치가 1990년 6월 이래 약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 국채 값과 엔화 가치가 모두 오를 거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 여기에 투자하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시장 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불법사금융 범죄 보험가입 지원 사기 피해자 이자납입 유예 추진

금감원 ‘민생금융’ 간담회 열어 2분기 중 취약층 피해예방 교육

금융권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과 연계한 보이스피싱보험가입지원과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자납입 유예 등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영리사회종합복지관에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민생금융 이야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8개 금융회사(우리·NH농협·기업·부산은행, 한화생명·손해보험, 신한카드, 웰컴저축은행)와 금융소비자 패널 6명, 2개 민간단체 대표(대한사회복지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권의 피해예방 노력을 공유했다. 금융소비자 패널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 금융교육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권은 2분기 중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보험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주제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반이다.

현재 한화생·손보, 신한카드 등은 금융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납입을 유예하거나 무이자로 분납 지원하고 있다.

농협은행, 한화생·손보, 신한카드는 2분기 중 외부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금융교육·홍보 인력을 확충하거나 대면 영업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영리사회종합복지관에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금융소비자와 함께 하는 민생금융 이야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앞줄 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채널을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은 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대한사회복지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감원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부 부처와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금융회사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민생금융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다양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범근 기자 nova@



하나은행은 1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개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함영주(왼쪽 네 번째)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이학재(세 번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승열(여섯 번째) 하나은행장, 유구종(두 번째) 인천국제공항공사 본부장 및 대한항공 승무원 대표들이 티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은행

하나은행, 인천공항지점 이전 개점

함영주 “33년 동행 계속... 큰 영광 최상의 금융서비스 제공 노력할 것”

하나은행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개점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영업점 △제2여객터미널에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대한항공남·여승무원회장, 함

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하나은행 임직원들이 참석해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개점을 축하했다. 함 회장은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앞으로의 10년을 포함해 33년간의 동행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국내 최고 외국환전문은행인 하나은행은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과 공항 종사자 모든 분들께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끝나지 않은 'PF 리스크'... 캐피탈·저축銀 '후폭풍' 거셀 듯

PF사업장 구조조정 시간 왔다

한신평 '2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 캐피탈 손실 3.5조~6조 전망
충당금 실제 적립도 크게 못미쳐

나이스신평 '2금융권 PF손실' 캐피탈 5조·저축은행 4.8조 추정
저축銀 작년 적자로 손실폭 늘 듯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추락할 경우 캐피탈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합산 손실이 최대 6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의 부실 PF 사업장 재평가가 조만간 공개되면 본격적인 구조조정 타임이 시작될 것이라 전망도 제기됐다.

15일 한국신용평가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제2금융권 업권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한신평은 캐피탈업종을 부동산 PF로 인한 후폭풍이 가장 클 것으로 봤다.

캐피탈사들의 지난해 말 9월 말 합산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노출액)는 총 28조6000억 원이다. 본PF 16조5000억 원, 브리지론 12조 원 규모로 구성됐다.

한신평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 3가지 상황을 가정했다. 1안은 현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부동산 경기 연착륙 상황, 2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한 저하에 직면했던 수준과 같은 경착륙 상황, 3안은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던 외환위기 당시의 부도율을 본PF 부도율에 적용한 극단적인 상황이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예상 손실 규모는 1안의 경우 3조5000억 원, 2안은 4조6000억 원, 3안은 6조1000억 원이다. 각각 캐피탈업권 전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대비 13.4%, 17.3%, 23.2%에 해당하는 규모다.

캐피탈사의 신용등급별로 손실률을 계산하면 A급 이하에서는 최소 16.2%에서 최

대 27.6%까지 예상되지만, AA급에서는 11.1~19.6% 수준으로 줄어든다. 오유나 한신평 연구원은 "극단 상황에서는 30%에 가까운 손실률이 예상되고 가정별 손실률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손실부담을 자기자본 규모와 비교하면 1안의 경우 11.5%, 2안은 16.2%, 3안은 23.4%로 집계됐다. A급 이하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손실규모가 16.3~33.2%로 AA급(7.4~1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기자본 대비 손실부담이 15%를 상회하는 업체 수는 1안에서는 7개에 불과했지만 2안에서는 11개로, 3안에서는 15개로 늘어나는 것으로 관측됐다.

캐피탈사들의 실제 충당금 적립 수준은 스트레스 테스트로도 출된 잠재손실 규모에 크게 못미쳤다. 잠재손실 대비 충당금

적립 수준은 1안의 경우 39%였으나 2안은 30%, 3안은 22%로 모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오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에는 수익성이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영업이익 2조8000억 원에서 상황별로 약 2조 원에서 5000억 원까지 수익성의 저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A급 이하 캐피탈사의 경우 극단적인 2안 상황에서는 합산 기준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나이스신평평가는 전날 발표한 2금융권의 부동산 PF 손실 현황 관련 보고서를 통해 2금융권 예상손실액이 최대 13조8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업권별로는 캐피탈 5조 원, 저축은행이 4조8000억 원, 증권사 4조 원 등이다. 이 추정치는 경매시장에서

감정평가액 대비 최종 낙찰가율 하위 25%를 기준으로 한 가장 보수적인 값이다.

금융감독원이 악성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손실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 체제에서 4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양호-보통-악화 우려'에 '회수의문'을 추가해 세분화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해 하반기 중 악화 우려나 회수의문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등을 통한 부실 정리를 진행하거나 사업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새로운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사업성이 있는 곳 위주로 가격을 재조정해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저축은행의 손실 폭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자본 여력이 있는 계열사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고 지난해 실적도 양호했던 증권사나 캐피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나이스신평평가의 분석 결과, 보수적 시나리오에서 지난해 5633억 원이었던 저축은행 업권 순손실 규모가 2024년 최대 2조2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김재은 기자 dove@ 정성원 기자 jsw@

'펫보험 1위' 메리츠화재·동물병원협회 '맞손'

'반려동물 의료복지 강화' 동행 나선다

진료비 부담 줄여 건강 증진 공감
'반려동물 인식 향상 시너지 기대'

펫보험 시장 5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메리츠화재가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업계와 동행에 나선다.

메리츠화재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및 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12일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사단법인 한국동물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노화 속도가 4배 정도 빠르게 진행된다. 특히 만 4세가 지나면 속도가 더 빨라져 주요 질환이 자주 발생한다. 반려동물 기대수명도 점차 늘어 각종 질환에 노출되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월평균 양육비 중 병원비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



김중현(오른쪽) 메리츠화재 대표이사과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이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및 의료복지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메리츠화재

으며, 한국소비자연맹은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와 한국동물병원협회는 펫보험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면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대 공감대를 형성,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펫보험 활성화, 보험사와 동물병원의 상생 등을 위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과도한 보험금 청구 서류 요청이 비전문적인 자가 진료로 이어져 동물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측은 반려동물의 선진화된 양육문화와 동물복지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펫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펫보험 활성화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또 수의사 전문성과 반려동물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양육자의 잘못된 자가 진료로 건강이 악화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생명으로서 더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할 예정이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는 "향후 펫보험 활성화와 반려동물 인식 향상에 큰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원 기자 jsw@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인슈어테크 활용 '암보험' 출시

삼성화재는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다이렉트 전용 신상품, '착! 이지(easy)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순수 보장성 갱신형 상품으로 만 19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기본 계약인 암 치료비 통합 담보를 통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암 치료비를 전부 보장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이 상품은 모든 종류의 암 치료비를 하나의 담보로 통합해 보장한다. 기존의 암 보험이 △수술, △표적·면역 항

암치료, △중입자치료 등 치료방법에 따라 다수의 특약을 개별 가입해야 하고 보장금액이 상이했던 것과 차별된다. 암 치료비에 집중, 30~40대 고객 기준 월납입 보험료 1만 원대 이하로 가입이 가능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시켰다.

특히, 질병이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세부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 상품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대기시간 없이 상품에 즉시 가입 가능하다.

정성원 기자 jsw@

한화생명, AI기술 활용한 주요 3대 암 특약 출시

'시그니처암보험 3.0'에 특약 탑재

한화생명이 최근 3년간의 보험금 청구서류 약 500만 건을 분석, 이 통계를 근거로 주요 3대 암(위·간·폐) 특약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특약에는 '인공지능(AI) 광학문자판독(OCR)'이라는 기술이 활용됐다. AI가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분류하고 문자를 추출한 뒤 의료기관과 치료 형태별 횟수, 비용 등을 자동화해 주는 기술이다.

한화생명은 AI 전문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와 손잡고 각 병원마다 양식과 기재 방법이 달라 인식이 까다로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 한화생명은 이를 근거로 고객들이 자주 청구하는 주요 3대 암(위·간·폐)을 선정, '한화생명 시그니처암보험 3.0'에 특약으로 탑재했다.



가장 주목할 보장은 '3대특정암 항암 약물방사선 암통원자금'이다. 통계 분석 결과, 항암약물치료에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이를 구분에 담보를 신설, 집중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3.0'의 가입가능연령은 일반가입형 간편가입형 모두 15세에서 80세까지다.

정성원 기자 jsw@

카뱅서 '사업자 인증서' 무료로 받으세요

금융권 첫 서비스... 간편 발급

카카오뱅크가 인증서 서비스 범위를 개인사업자로 확대해 인증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사업자 인

증서' 발급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자 인증서는 사업자 대표자의 신원 확인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인증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전자입찰, 금융거래 등 개인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자거래에 사용된다.

지난해 12월 카카오뱅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사업자 인증서 출시를 위한 전자서명인증평가를 획득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또, 매년 인증서 발급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했던 최대 11만 원의 발급 수수료(범용 인증서 기준)를 무료화했다.

김범근 기자 nova@

‘IPO 대어’ HD현대마린 출격... “해양종합솔루션사 될 것”

기업공개 기자간담회

선박에프터마켓(AM·유지보수) 서비스 기업 HD현대마린솔루션이 독보적인 해양 종합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며 유가증권시장에 출시표를 던졌다. 최근 불거진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에는 “오히려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의프리미엄을 뺐다”며 선을 그었다.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IPO를 통해 HD현대의 세계 최고 조선해양을 향한 발걸음에 맞춰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기반 토탈 마린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2016년 HD현대중공업에서 선박관련유무상 사후서비스(AS) 담당 조직을 통합해 탄생했다. 출범 이후 주 사업영역인 AM 서비스뿐만 아니라 병커링(선박 연료유 공급), 글로벌 친환경 기조에 발맞춘 친환경 개조, 디지털 솔루션 등으로 영업을 확장했다.

2017년 출범 첫해 매출은 2403억 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1조4305억 원을 기록했다. 연평균 35%씩 성장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546억 원에서 2015억

희망가액 범위 7.3만~8.3만원

16~22일 수요예측 공모가 확정

상장 후 시총 최대 3.7兆 달해

PER 31.5배 고평가 논란에는

“MRO 프리미엄 뺐다” 선 그어

원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14.1%를 기록했다. 반면 2021년부터 지난해 자본지출(CAPEX)은 61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감소했다. 적은 자본지출로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핵심 사업인 AM 부문 매출액 대비 이자 및 세전 이익(EBIT) 마진율은 지난해 23.8%를 기록했다.

경쟁력으로는 차별화된 AM 솔루션 사업모델이 꼽힌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글로벌 1위 조선사인HD현대가 건조한 선박과 기자재에 대한 독점 권리를 가진 AS 사업자다. 대표적으로 4행정 엔진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점유율을 가진HiMSEN에 독점적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 전 세계 2행정 엔진의 99%를 차지하는 만에너지솔루션, 빈터투어가스엔디젤의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다.



이기동(오른쪽 첫 번째)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이사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HD현대마린솔루션 기업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중국 등 후발주자와의 경쟁 우려에 대해서 “AM 사업 특성은 라이선스에 기반한 사업이고 라이선스가 없으면 아예 끼어들 수 없는 구조”라며 “제한된 플레이어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격차가 크고 HD현대마린솔루션의 기회 요인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공모로 유입되는 자금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연구개발 등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M 시장 내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하고 친환경 개조사업의

역량 확대와 선박 디지털 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AM 시장 내 브랜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인수·합병(M&A)에도 나선다. 이 대표는 “공모자금의 절반을 AM 시장에 쓸 예정이며 친환경 엔지니어링을 백업해줄 중소형 설계를 인수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의 공모 주식 수는 총 890만 주로 이중 공모에서 신주와 구주가 절반씩 차지한다. 희망 공모가액 범위는 7만3300~8만3400원으로 상장 뒤 시가총액은 3조2582억~3조7071억 원이

다. 16일부터 22일까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25~26일 일반투자자 청약을 진행한다. 상장일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됐다.

다만 HD현대마린솔루션의 기업가치가 부풀려졌다는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추가수익비율(PE)이 30배 이상으로 높은 데다가 가치평가 기준인 비교종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관사단은 지난해 HD현대마린솔루션의 지배주주순이익 1511억 원에 유사기업 4곳의 평균 PER을 적용해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한 뒤 할인율 21.4~30.9%를 부여했다. PER은 31.5배다.

성기종 HD현대마린솔루션 IR담당 상무는 이에 대해 “세계에서 유일한 사업을 하다보니 적절한 비교 그룹이 없었고 그 중에서 찾은 기업이 선박 부품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곳들이었다”며 “좀 더 유사성 가진 항공 MRO 부문 쪽은 우리보다 높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HD현대마린솔루션의 고성장성, 고수익성, 안정성 등을 따지면 비교 기업들보다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된다”며 “오히려 프리미엄을 배제했고 디스카운트만 적용해 PER을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김효숙 기자 ssook@

산업 성장 기대감에... 로봇株 상장 러시

씨메스·시스콘로보틱스·클로봇 전통 유형서 SW까지 신규 진입

로봇 기업들의 상장 추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D 비전 및 인공지능(AI) 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 업체 씨메스는 이달 1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회사측은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한다. 업계에선 씨메스의 상장 후 예상 기업가치를 4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계에서 도입을 원하는 로봇이 형태가 기존 규격화된 작업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더 유연한 움직임을 원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만큼 씨메스의 3차원 로봇 제어 기술력이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씨메스의 ‘비정형 솔루션’ 기술은 3D 비전과 AI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이 물체의 좌표를 3차원으로 인식, 필요

한 작업을 고려해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메스는 2014년 설립된 후 기술특례상장에서 기술성평가가 최고 등급 ‘AA’를 달성하며 대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며 성장을 이어왔다. 쿠팡, 현대·기아차, LG전자, CJ대한통운, 나이키 등이 대표적이다. 쿠팡은 이달 초 지분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메스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76억 원, 영업손실은 99억 원이다.

물류 로봇 제조 기업 시스콘로보틱스도 지난달 29일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 올해 하반기 상장을 계획 중이다. 시스콘로보틱스는 물류 로봇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력과 물류 로봇 제어에 필수적인 로봇 통합 관제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브이웍의 자회사인 시스콘로보틱스는 물류 로봇 관련 플라인업을 갖춰

현대차를 비롯해 현대위아,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약 50여개의 기업에 물류 로봇을 공급해왔다. 지난해 매출 286억 원, 영업적자 49억 원을 기록했다.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 클로봇도 이달 중 상장예비심사를 청구, 올해 내 상장을 추진 중이다. 주력 분야는 실내 로봇 자율주행 서비스로, 범용성 높은 주행 및 관제 솔루션을 갖춰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상장주관은 미래에셋증권이 맡았다.

양승운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정형 환경 내 로봇 수요 확대 속 동사 솔루션 수요 증가 속 성장 흐름이 기대된다”며 “다수의 기업들이 상장 대기 중이다. 전통 유형의 로봇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유형의 로봇 기업의 신규 진입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다시 부는 ESG채권 바람

SRI채권 상장잔액 250兆 20%↑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으로 불리는 사회적책임투자(SRI)채권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RI채권의 상장 잔액은 이날 기준 249조70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 년 전(207조2715억)보다 20.5% 늘어난 규모다.

SRI채권은 국제기구가 제정한 사회적채권원칙과 기후채권기준, 한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된다. 자금 조달 목적에 따라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SLB)으로 나뉜다. 주요 기업 평가기관들은 SRI채권 발행을 ESG 활동 평가항목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

채권 종류별로 보면 사회적채권 상장잔액(205조1118억 원)을 필두로 녹색채권(26조2708억 원), 지속가능채권(18조980억 원), SLB(2200억 원)가 뒤를 이었다.

투자도 활발하다. 올해 SRI채권의 거래대금은 6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늘었다.

발행 주체도 국책은행이나 정부기관 같은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뀌고 있다. 현재 민간기업 중 SRI채권 발행에 앞장서는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퓨처엠이 대표적이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2월 총 8000억 원 규모 녹색채권 발행에 나서 수요예측에서 총 5조61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이는 회사채 수요예측 역사상 최대 규모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SRI채권 발행기관 중 상장잔액 8위를 기록 중이다. 공기업은 제외한 민간기업 중에서는 1위를 기록 중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SRI채권은 공기업이나 은행, 캐피탈사를 위주로 발행되고 있다”며 “금융사 외 다양한 기업들이 SRI채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앞으로도 꾸준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예탁원, 확대 개편한 자산유동화 통합시스템 ‘순항’

금융사 35곳 참여... 안정적 운영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행된 이후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에 참여 중인 금융사는 증권사 23개사, 은행 4개사, 주택금융공사 및 부동산신탁회사 8개사 등 총 35개사다. 발행인이 특수목적회사(SPC)인 경우,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등이 발행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대외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지난달 말 기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유동화증권 42건과 비등록유동화증권 1440건 등 총 1882건의 발행내역을 등록했다.

예탁원은 2021년 1월 자산유동화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해 금융당국의 자산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제도개선을 지원해왔다. 이후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유동화증권 정보

공개시스템(SEIBro)의 유동화증권 공시정보 연계 제공과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체계 개편 등 기존에 제공되던 데이터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발생했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투자자는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정희인 기자 hihello@

KB운용 머니마켓액티브, 파킹형 ETF 선두

초단기채 투자하며 초과수익 추구

KB자산운용은 초단기채 상품인 ‘KB STAR 머니마켓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1개월, 3개월, 6개월 수익률이 각각 0.38%, 1.10%, 2.28%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내 증시에 상장한 파킹형 상장지수펀드(ETF) 12종 중 1위다.

KBSTAR 머니마켓액티브 ETF는 3개월 이내 초단기채권에 투자하며 적극적인 초과수익 추구 전략으로 같은 유형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낸다.



기초지수는 ‘KIS 시가평가 MMF 지수’다. 주로 3개월 이내 단기채권과 기업어음(CP)에 70~80% 수준, 가격 변동성이 낮은 정기예금 등 현금성 자산에 20~30%를 투자한다. 손민지 기자 handmin@

‘미분양의 무덤’…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 나아질까

지난해 2월 1만4000가구 정점 미분양 물량을 2월 1만 아래로 최근 ‘범어아이파크’ 1순위 청약 2년여 만에 미달 없이 두자릿수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은 여전히 “아직 악화 우려 크다” 지적도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의 상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분양 물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년여 만에 미달을 피하는 동시에 두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등장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구 범어아이파크’는 최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82가구 모집에 1370명이 접수해 평균 1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84㎡A 타입과 84㎡B 타입은 각각 31.63

대 1, 19.97대 1로 마감됐다. 대구에서 두자릿수 청약경쟁률 단지가 나온 것은 2021년 12월 ‘더 센트럴 화성파크드림’ (14.5대 1)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미달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이때 이후 처음이다. 대구 지역 분양단지에서는 2021년 말경부터 청약 미달 사태가 지속됐다.

범어 아이파크 직전 대구에서 분양한 ‘반고개역 푸르지오’와 비교해도 대조적이다. 반고개역 푸르지오는 올해 2월 239가구 모집에 19명만 청약해 평균 경쟁률이 0.1대 1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최근 대구 지역 미분양 주택은 감소세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해 2월 1만3987가구로 1만4000가구에 육박했던 대구 미분양 주택 수는 12개월 연속 줄면서 올해 2월 9927가구까지 줄었다. 대구 미분양 주택이 1만 가구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2년 8월 (8301가구) 이후 18개월 만이다.



2021년 하반기 2000가구 안팎이던 대구 지역 미분양은 2022년 빠르게 증가했다. 2022년 1월 3678가구로 시작해 2월 4000가구를 넘었고 3월에는 6000가구를 돌파했다. 두 달 뒤인 8월 8000가구 이상으로 늘었고 9월부터 1만 가구대를 유지했다.

대구 미분양 감소세 등이 반영되면서 해당 지역 내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도 살아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4월 대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9.4포인트 상승한 76을 기록했다. 전국

오름폭인 8.1포인트를 웃도는 수치다.

오랜만에 청약에 흥행하는 단지가 등장하고 지표도 최악을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아직 미분양 우려를 지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범어 아이파크에 청약자가 몰린 것은 범어동이 유명 학원가 등으로 워낙 선호도가 높은 곳이고 향후 시장 회복기 반등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란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선호 입지나 가격에 따라 수요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

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시장에서 두드러지는 쏠림 현상의 일부일 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오히려악성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일반적인 미분양은 할인 분양이나 시장 상황 변화 등에 따라 해소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말 그대로 주인 없는 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구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 기대보다 악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월 277가구에서 4월 1000가구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9월 712가구까지 줄었고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2월 현재 1085가구를 기록 중이다.

전보규 기자 jbk@

매매·전세 동반 약세… 오피스텔 시장 올해도 ‘울상’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내림세다. 전셋값도 동반 하락을 이어갔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국 기준 0.47%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0.56%) 대비 0.09%포인트(p) 오른 수치다.

오피스텔 매매값 하락은 지난 분기에 이어 5분기 연속 전국에서 관측됐다. 수도권(0.45%→0.43%)과 지방(-

1분기 전국 매매값 0.47% 하락 5분기 연속… 전세도 0.27% 폭 월세 0.22% ↑… 서울 0.4% 올라

1.02%→0.62%) 모두 하락했다. 다만, 낙폭은 소폭 줄었다. 서울(-0.38%→-0.26%)도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광역교통망 호재와 상권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 형성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인천(-0.45%)과 경기(-0.58%) 등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값 역시 내림세가 지속됐다. 인천은 광역교통망과 지하철 연장 호재에 따라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값 회복세를 기록하면서 오피스텔값 역시 동반 상승 기대감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이 줄었다.

경기도는 보증보험 한도 축소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급매물 및 지역별 분양권 물량이 누적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이 커졌다.

오피스텔 전셋값은 전국 기준 0.27% 하락했다. 서울(-0.26%→-0.17%)은

역세권 및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의 아파트 시장 회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

월세는 올해 1분기 0.22% 상승했다. 수도권은 0.31% 상승, 지방은 0.14%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82%), 서울(0.40%), 경기(0.40%), 대전(0.22%)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전국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은 3월 기준 6.11%로 나타났다. 수도권 6.04%, 지방 6.79%, 서울 5.66% 등으로 집계됐다. 정용욱 기자 dragon@

하·폐수 재이용률 향상 원천기술 SK에코플랜트, 특허·녹색 인증

SK에코플랜트는 최근 CSRO(순차적 순환공정역삼투막)가 특허 및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CSRO는 역삼투막에 공급되는 하·폐수를 정방향, 역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해 농축수를 공정 내에서 재순환시키는 기술이다. 역삼투막은 방류수의 화학물질이나 이물질 등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한다.

SK에코플랜트는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CSRO를 적용, 파일럿 실증을 진행한 결과 최대 회수율 97%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기존 기술 대비 10% 이상의 전력



CSRO 하수처리장 파일럿 테스트 시설 전경. 사진제공 SK에코플랜트

사용량 절감 효과도 거뒀다. 하·폐수 재이용 관련 글로벌 타이어 기업인 미국 듀폰(DuPont)사의 기술에 비견할 만한 수준이란 게 SK에코플랜트 측의 설명이다.

SK에코플랜트는 올해부터 CSRO 기술의 사업화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주요 고객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폐수 공정 회수율 증대, 전력 및 세정약품 사용량 절감 등 CSRO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도 확산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마켓리서치의 물 재이용 시장 보고서(2023)에 따르면 2023년 161억 달러(약 22조 원) 수준이던 글로벌 용수 재이용 시장은 2028년 약 270억 달러(약 36조 원)까지 확대가 예상된다.

조재연 SK에코플랜트 Environment BU 대표는 “물(Water), 폐기물(Waste), 배터리(Battery) 등 환경사업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아우르는 전 분야의 기술 활성화를 계속하겠다”며 “환경사업의 체질을 기술 기반으로 바꾸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1년간 수도권서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 ‘과천’

9.4% ↑… 화성 8.0%로 2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과천과 화성, 분당 등은 아파트 매매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롭테크 업체 직방은 수도권 지역별 매매가격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과천시는 4월 기준 3.3㎡당 4968만 원으로, 지난해 4월과 비교해 9.4%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자치구 내 가장 높은 가격 변동률이었다.

이어 화성시(8.0%), 성남시 분당구(5.8%), 수원시 영통구(5.5%), 하남시(4.5%), 용인시 수지구(4.2%) 순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천은 서울 서초구와 접해 있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강남권 주택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1년간은 별양동에 위치한 주공4단지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별양동 주공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은 5541만 원으로 지난해(4095만 원) 대비 35% 상승했다.

화성의 3.3㎡당 매매가격은 1532만 원으로 지난해(1419만 원)보다 8.0% 상승했다. 3월 GTX-A노선 개통 호재로 동탄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동탄역 근처에 위치한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또한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4분기(매매 411건) 이후 올



해 1분기 거래량(598건)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신축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 이남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높았던 데는 서울에 1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고 학군,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해 주거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

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라고 판단하기엔 어려워 보인다”며 “고금리 기조 속 저리 대출상품 등의 거리가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입지에 따라 국지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양국화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지은 기자 hje@

‘작업중지권 보장’ 삼성물산 건설부문…3년간 30만건 행사

업계 대표 ‘안전문화’ 정착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2021년 3월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국내외 116개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권 행사가 30만1355건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

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근로자 포상과 협력업체의 손실 보장 등 안전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 번씩 근로자가 작업중

지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면 보장 첫 해에 8224건, 2년째에는 4만 445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3년째에는 한 해 동안 총 24만 867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당장의 급박한 위험 방지 차원을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작업중지권 행사가 일상화된 것이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위험으로는 근로자의 충돌·협착(31%) 관련 상황이 가장 많았다. 이어 추락(28%)과 장비 전도(24%)가 뒤를 이었다. 충돌과 협착·추락·전도 등 중대재해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한 작업중지가 전체의 80% 이상에 달한 것이다. 폭염이나 폭우, 미세먼지 등 기후 관련 작업중지도 증가 추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허지은 기자 hje@

암기서 탐구 위주로... '교실혁명'에 3818억 투입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이끌기 위한 교사 역량 강화에 올해 3818억 원을 투입한다. 2026년까지 3년간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 '교실혁명 선도교사' 3만 4000명을 양성하고 모든 교사에 대한 맞춤형 연수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암기위주 교육에서 질문과 토론 중심의 탐구 수업으로 전환하는 '교실혁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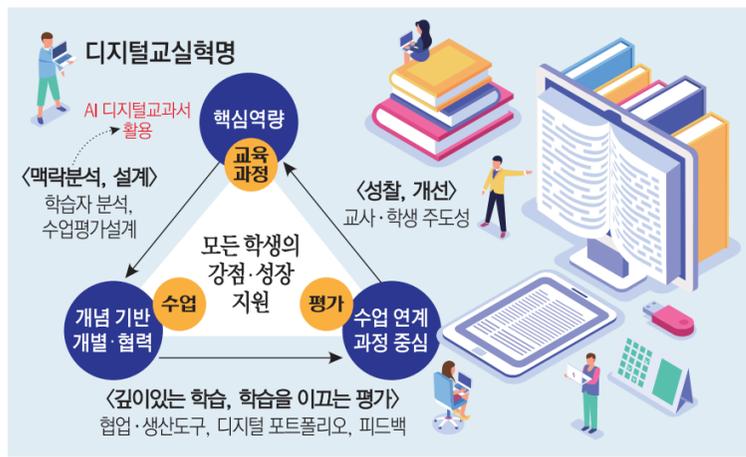
교육부는 먼저 수업 변화를 이끌어갈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2026년까지 3

교육부, 디지털 교육혁신 지원

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육성 학생 성장에 초점 맞춤 연수 제공 보조강사 배치로 업무 부담 완화

만4000명 우선 양성할 방침이다. 선도교사는 수업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로 한 학교에 2~3명씩 확보, 이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기존 교사를 대상으로 1만1500명을 공모 등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4월부터 '함께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수 방식도 정책 전달 중심의 일회성 연수에서 수업혁신 가치와 방향을 함께 탐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선도교사 연수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회정서교육' 등 학생



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전문성 제고 과정과 함께 동료교사 상담(코칭) 방법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편차 등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도 지원한다. 교사들은 간단한 진단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연수를 추천받고,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배지)

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 튜터 등 보조강사 1200명을 양성하고,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과 수업사례를 제공한다.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에듀테크 개발에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업혁신에 대한 성과보상(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에 앞장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을 신설해 100명의 우수 교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공감대를 갖고 함께 추진하는 정책으로, 앞으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교사들의 수업혁신을 지원할 것"이라며 "교실혁명을 통해 오랫동안 계속돼 온 지식 전달 위주의 산업사회 수업방식을 학생 모두가 자신만의 질문을 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수업방식으로 확실하게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늘봄학교 수업 진행하는 오영주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충남 공주 석송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청소년 비즈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前 씨세븐 대표〉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사기 혐의 구속

대장동과 별개 사기사건으로 피소 20억원 규모... 法 구속영장 발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기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11일 이 전 대표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은 별개의 개인 고소사건으로 파악됐다. 사건 고소인은 이 전 대표로부터 20여억 원대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씨세븐은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을 시작한 개발업체로 남유 변호사(전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전화동인 5호 소유주)가 각각 법률자문과 회계자문을 해준 회사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 민간합동 개발로 바뀐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8월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의혹으로도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2011년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가 이 전 대표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상한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 이들을 '뺑주기 수사'한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수진 기자 abc123@·김이현 기자 spes@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사당 장애 아동수 줄여야 질 높은 교육 가능"

'우리마포어린이집' 간담회 개최 기존 교사비율 3대 1 체제는 무리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구분도 없애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학생당 교사 비율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일관되게 나온다"면서 "유보통합이라는 체제 전환 과정을 무리 없이 진행하면서도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인 '우리마포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청 관계자들과 우리마포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2명, 학부모 5명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 영유아 대상 기관들

도 통합돼 공동된 교육과정을 이행하게 되는데, 현재 기관마다 존재하는 교육의 질 격차 등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공정숙 우리마포어린이집 원장은 "현재 장애 영유아 대 교사의 비율이 3대 1인데, 장애 영유아는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 3대 1은 무리"라며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위해 유보통합이 전면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2대 1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뇌병변 자녀를 양육 중이라는 한 학부모는 "유보통합이 되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같은 부분도 구분 없이 이뤄지는 게 중요할 것"이라면서 "장애 아동 부모는 좀 더 도움이 되는 기관을 찾고 있는 절실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기관에 따라 (보·교육 서비스) 차이가 나서 누구는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받는데 누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을 통해 제도적으로 일원화

가 된다면 향후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아이들 간 격차도 줄어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자녀 중 둘째가 자폐증과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는 한 학부모는 "유보통합이 실현된다면 한 교실에서 두 자녀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 같다"면서 "둘째는 장애아라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학교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자폐 아동에 대한 정보는 기관이 안 되지만, 유보통합이 되면 한 체계 안에서 정보가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12명 이상의 장애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총 8개소가 있다. 교사 1명이 아동 3명을 맡으며 전문치료가 상주해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제공한다. 이날 간담회가 진행된 우리마포어린이집은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특수·장애 아동 17명을 포함해 만 0세부터 6세까지 총 38명의 아동이 보·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정유경 기자 oiljung@

범야권 '채상병 특검' 움직임에 공수처 촉각

국힘 "특검법 찬성" 목소리 커져 '하세월' 처장 지명 지연 우려도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법 처리가 논의될 뿐 아니라 3개월째 공백상태인 공수처장 후임 인선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아직 주요 피의자들을 조사하지 못했다.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지명된 후 4시간 동안 약속 조사한 게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법 처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통과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고발 이후 사건을 수사해 온 공수처가 진척 없이 사건을 특검에 넘기면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될 수도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후임 처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애초 총선 이후 처장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었지만, 여당이 참패하면서 수장 공백 사태가 한참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새로운 처장이 외야 수사에 속도가 나고, 사건 처분에 대한 책임도 진다"며 "공백 사태로 무기력한 수사기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spes@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IBK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1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대출통로 BOX관련 자세한 문의로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BOX** 대출통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

글로벌 AI 인재 찾아 실리콘밸리 찾은 황현식

〈LG유플러스대표〉

스탠퍼드대 등 석·박사 초청
미래비전 공유행사 직접 주관
“일상 속 AI 미래 함께 만들자”
4박5일 미국 출장기간 동안
빅테크·스타트업과 미팅도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포시즌스 호텔에서 AI 분야의 글로벌 인재들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를 직접 주관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아 인공지능(AI) 분야 글로벌 석·박사들과 만남을 갖고 인재 유치에 나섰다.

황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포시즌스 호텔에서 AI 분야의 글로벌 인재들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를 직접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인재들은 스탠퍼드 대학교, 조지아 공과대학교, 일리노이 대학교 등 미국 주요 대학의 AI 분야 석·박사 10여 명이다.

특히 자연어처리(NLP), 대형언어모델(LLM), 비전(Vision) 등 AI 핵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LG유플러스는 올 1월 미국 캠퍼스리크루팅을 통해 회사가 추진하는 AX(AI Transformation) 과제들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연구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찾고, 이들을 실리콘밸리로

초청하면서 이번 만남이 성사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황규별 전무(CDO), 김지훈 상무(CSO) 등 LG유플러스의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AI에 대한 미래 비전을 인재들과 함께 공유했다.

황대표는 “LG유플러스는 고객일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꿈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객경험을 현실로 만들 AI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술을 꽃피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어 “여러분들과 LG유플러스의 꿈이 어울려 함께 고객의 일상 속에 AI가 스며드는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행사를 함께한 인재들은 “LG유플러스가 통신 회사기 때문에 AI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풍부한 것 같다”면서 “LG유플러스는 애지일한 조직문화가 잘 갖춰진 회사로 알고 있는데, 스타트업처럼 AI 신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시도를 빠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황 대표는 인재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4박 5일의 일정으로 AI 역량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멀티모달 감성 분석 AI 솔루션, 실시간 TTV(Text to Video) 등 AI 분야에서 선도적 기술 역량을 갖춘 글로벌 스타트업, 빅테크 기업들과 연이어 미팅을 갖고 글로벌 AI 기술 트렌드 파악하는 한편, 미래를 위한 다양한 사업 기회 발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지난달 21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누가 더 AI 응용기술을 먼저 확보해 상품화하고 혁신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응용기술 △상상력 △속도 등을 키워드로 AI를 활용해 전에 없던 차별적 고객 가치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술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재·상상력·협업 등 키워드로 AI를 활용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며 “AI 인재와의 만남에서 시작해 글로벌 AI 기술 기업과의 미팅으로 이어지는 이번 실리콘밸리 일정은 황 대표가 강조하는 3가지 키워드(인재·상상력·협업)에서 모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성난 사람들’ 美 작가조합 각본상 제작자·배우 이어 3대 조합상 석권



왼쪽부터 ‘성난 사람들’ 주연을 맡은 배우 엘리 워그, 스티븐 연과 이성진 감독. AP뉴시스

한국계 감독과 배우가 활약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영문명 BEEF)’이 미국작가조합(WGA)이 수여하는 TV 미니시리즈 부문 각본상을 받았다. 제작자·배우 조합에 이어 세 번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와 WGA 등에 따르면 ‘2024 WGA 시상식’에서 TV 미니시리즈 부문 각본상으로 ‘성난 사람들’이 선정됐다. 이로써 ‘성난 사람들’은 올해 할리우드 4대 조합 시상식 가운데 감독조합을 제외하고 제작자와 배우, 작가까지 3대 조합상을 받게 됐다. 앞서 ‘성난 사람들’은 2월 미국제작자조합(PGA)에서 TV 미니시리즈 부문 최우수 제작자상을, 미국배우조합(SAG)에서 TV 영화·미니시리즈 부문 남녀 주연상을 받았다. 이번 작가조합의 각본상까지 3대 조합상을 석권하게 됐다.

‘성난 사람들’은 1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TV 미니시리즈 부문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 등 3관왕에 올랐다. 특히 연출과 제작·각본을 도맡은 이성진 감독과 주인공을 맡은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 상대역을 연기한 아시아계 배우 엘리 워그 각각 작품상과 남녀 주연 배우상을 석권하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세플러, 마스터스 두번째 정상에 우즈는 16오버파로 최하위 기록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사진)가 두 번째 마스터스 정상에 올랐다. 셰플러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GC(파 72)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첫 번째 남자골프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쳤고,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66-72-71-68)로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360만 달러(49억8000만 원)다.

이로써 셰플러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마스터스 정상에 올랐다. 특급대회인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 이어 올 시즌 세 번째 우승이다. 통산 9승, 메이저대회 우승은 두 번째다. 이번 우승으로 상금과 페덱스컵 랭킹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셰플러는 세계랭킹에서도 2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와의 격차를 더욱 벌려냈다.

24년 연속 컷 통과의 위업을 달성한 타이거 우즈(미국)는 5타를 잃고 컷을 통과한 60명 가운데 최하위로 처졌다. 우즈가 제출한 16오버파 304타는 그가 프로 무대에 나선 이후 최악의 스코어다.

기정아 기자 jionga1006@·사진 EPA연합뉴스

대한항공, 노조 창립 60주년 기념 ‘노사 한마음 페스티벌’

대한항공은 13일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노조 창립 60주년 기념 ‘한마음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과 가족 2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진성준·박대수 국회의원, 허희영 항공대학교 총장 등 주요 내빈도 참석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행사 축사를 통해 노사 화합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우 사장은 “회사의 발전과 임직원 모두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손을 맞잡은 건강한 노사관계가 대한항공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됐다”며 “오늘 한마음페스티벌을 계기로 아름다운 노사 상생과 화합의 문화가 더욱 공고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매년 창립 기념일을 기념하



며 노사 합동 걷기 대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60주년을 맞아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사진제공 대한항공

에쓰오일, 발달장애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에 후원금

에쓰오일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2009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하트하트재단을 후원하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 단원 7명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등 문화예술 나눔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장애 청소년의 재능 계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2006년 창단한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다. 에쓰오일은 햇살나눔 콘서트 개최(총 43회), 장애이해교육 ‘하트해피스쿨’(총 423회) 진행, 발달장애인 단원 장학금(241명) 등 총 약 14억 원을 후원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안와르 알 히즈아지(왼쪽) 에쓰오일 CEO가 오지철 하트하트재단 회장에게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에쓰오일

솔바이오 반경식 대표이사 선임

엑소솜 전문기업 솔바이오는 반경식(사진)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반경식 대표이사는 1991년 메디슨에 입사한 이후 메디슨 대전지사 국내사업부 사업부장을 거쳐 셀트랩 대표이사, 티에스메드, 티에스바이오 부사장, 베르티스헬스케어 부사장 등을 거쳤다.

솔바이오는 반경식 대표이사의 영입을 통해 엑소솜 기반 기술의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이동민

◆방위사업청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홍미루 △국제협력관 정기영 △감시전자사업부장 윤창문 △방위사업교육원장 박영근 ◇과장급 전보 △미래도전기기술사업팀장 권선아

◆문화재청 ◇국장급 전보 △국립무형유산원장 윤순호

◆새만금개발청 ◇4급 승진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실 최낙행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본부장 전보 △감사실장 신진규 △기획조정본부장 박동열 △미래인재진로연구본부장 황성수 △평생직업교육연구본부장 최동선 △고

용능력연구본부장 이수경 △교육고용연계연구본부장 정윤경 △경영지원본부장 김종일 △센터장 전보 △연구기획센터장 이재열 △동향·데이터분석센터장 반가운 △인력수급분석센터장 홍광표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장 주희정 △직업계교육과정·학점제센터장 윤형한 △고등·평생직업교육연구센터장 장주희 △기업훈련연구센터장 김대영 △지역·산업HRD 연구센터장 문한나 △직무능력연구센터장 김상호 △자격연구센터장 전승환 ◇팀장 전보 △전략성과관리팀장 윤여인 △예산팀장 김동환 △홍보팀장 조선영 △지식정보팀장 서상준 △인사팀장 김지수

◆마이크로스트레티지코리아 △지사장 정경후

부음

▲김태선 씨 별세, 전이리(서울 자모내과 원장)·원책(변호사·방송인)·이경(전 오산고교사)·원양(부천 연세가정의학과 원장) 씨 모친상, 김성은(국립암센터 의사)·김미숙 씨 시모상, 박건양·최이준 씨 장모상, 박유진(삼성전자 법무실 책임)·박승구(서울미다스한의원 원장)·최동호(한화그룹 인재경영원 대리) 씨 외조모상 = 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02-2227-7584

▲방용임 씨 별세, 홍성도 씨 부인상, 홍종기(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지혜 씨 모친상, 강주현 씨 시모상 = 15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2-2072-2010

전하진 칼럼



SDX재단 이사장

‘초객체 혁명’에 대응 시급하다

초객체란, 철학자 티모시 모턴(Timothy Morton)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전통적인 개념이나 경계를 넘어서는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지칭한다. 초객체는 그 규모가 방대하고,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상적인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지만 그 영향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전체적인 문제의 규모를 한눈에 파악하기도 어렵다. 인공지능 또한 마찬가지고, 그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전세계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아직 오로무중이다.

이런 초객체는 기술, 환경, 사회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복잡한 개념이며, 이는 각각의 요소가 상호 작용하며 발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단일 요소나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보육 지원 등에 지난 15년간 약 380조 원을 사용했지만 2023년에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객체 상황을 이해한다면 당장에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거시적 차원에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아이들이 평생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확신 같은 것이다. 과연 기후 위기로 그들에게 안전한 생태계가 보장될 것인지, 일터와 행복은 담보될 수 있을지 등에 관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하다. 만약 초객체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봤다면 이런 예산을 모두 모아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

기후위기·AI 기존인식 넘어선 변화 산업중심서 생태중심 전환 요구돼 정부·기업 지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이나 교육 등 인프라 투자에 사용했을 것이다.

초객체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후위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 중심의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생태 중심의 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개념을 뛰어넘는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가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속가능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질지 모른다.

하지만 또 다른 초객체적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영향력이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증가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단기적 관점을 지양하고 초객체적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정부조직이나 예산 집행 등에 있어 이러한 대책은 찾기가 어렵다. 무의미하게 예산만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초객체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전환 없이는 결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초객체를 이해하기 위한 대규모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 당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기업들도 초객체를 이해하지 못한 사업계획은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대비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도 이런 거대한 초객체를 이해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초객체를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하고 지구적 선(Global Good)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재의 난제를 푸는 묘수가 될 수 있다.

총선이 끝났다. 승자와 패자의 기쁨과 회한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을 시끄럽게 장식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활동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많지 않다. 늘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2023년에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이슈를 정리해 놓았는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교통·인프라 개선, 사건·사고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및 생태 보호 등으로 이슈가 집약된다.

아마도 후보자들은 대략 이런 이슈를 기반으로 선거에 임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에 대해 ‘초객체(Hyperobject)’를 이해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온난화의 역설 ‘짧아지는 하루’

1년은 며칠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혹시 난센스 퀴즈인가?’라고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365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1년=365일’이라는 수식은 천문학의 관점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지구 공전주기는 365.24일이기 때문이다. 4년에 한 번꼴(엄밀히 말하면 400년에 97번)로 ‘1년=366일’인 윤년(閏年)을 두는 이유다. 바로 올해가 그런 경우로 2월 28일 뒤에 윤일(閏日)인 29일이 있다.

과학 발달로 윤달·윤일에 ‘윤초’ 더해져

음력을 쓰는 지역에서는 또 다른 윤년이 있다. 바로 윤달이 들어있는 해다. 달의 공전주기는 29.53일로 열두 달이 354.36일이다. 따라서 지구 공전 기준 1년인 365.24일보다 10.88일이 적으므로 이를 보정해야 한다. 대략 19년에 7번, 즉 2~3년에 한 번 빈도로 윤달을 넣어 맞춘다. 최근 윤달은 지난해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윤이월이었고 다음 윤달은 내년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윤이월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윤년이 있다. 윤초(閏秒)를 반영하는 해로, 윤일이나 윤달이 수천 년 전부터 쓰여왔던 것과는 달리 1972년 처음 적용했으니 현대 과학의 산물이다. 그런데 윤초란 무엇일까.

하루의 기간을 천문학 관점에서 정의하면 지구가 자전으로 360도를 돌았을 때 걸리는 시간이다. 이는 단위에 따라 24시간 또는 1440분 또는 8만 6400초다. 따라서 1초는 하루 시간의 8만 6400분의 1로 정의할 수 있다. 바로 1874년 과학자들이 내린 정의다.

그런데 그 뒤 지구 자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달의 인력으로 바다가 끌리며 해저와 마찰이 생겨 자전 속도를 조금씩 느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 14억 년 전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지구의 하루는 19시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00년 전 일식 관측 기록 역시 지금 계산과 4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때 하루가 지금보다 수십 밀리초 짧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대략 100년에 1.4~1.7밀리초 짧아지는 하루가 길어졌다. 따라서 시간을 절대적인 값으로

과학세상

강석기 과학칼럼니스트



시정의할 필요가 생겼고 이렇게 해서 1960년대 원자시계가 제안됐다. 즉 세속 원자가 방출하는 방사선의 91억9263만1770주기가 1초다. 이는 약 200년 전 하루의 8만6400분의 1에 해당한다.

원자시계의 초를 채택하면서 지구 자전에 기반한 하루가 8만6400초보다 2~3밀리초 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초를 적용하기로 했다. 즉 여분의 시간이 쌓여 1초에 가까워지면 6월 30일 23시 59분 59초 또는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뒤에 다시 59초가 된다(1초 추가).

그런데 주기적인 윤달과는 달리 윤초는 격년으로 오는 게 아니다. 처음 도입됐을 때는 거의 매년 적용됐지만 2000년대 들어 빈도가 푹 떨어져 5차례에 불과하다. 지구 자전 속도가 다시 빨라졌기 때문이다. 지구 내부를 이루는 핵의 점도가 약간 높아지면서 바깥쪽 맨틀에 미치는 마찰력이 줄어들며 가속 효과가 생긴 결과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일시적 현상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구 자전 속도가 느려지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빙하 녹아 해수면 ↑...지구 자전속도 늦춰

아무튼 이 결과 202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하루가 8만6400초보다 짧아져 2026년에는 1초를 빼야 하는, 즉 23시 59분 58초 뒤에 다음날 00시 00분 00초로 바꾸는 ‘음의 윤초’를 적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날 컴퓨터 프로그램 대다수는 음의 윤초를 상정하지 않아,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학술지 ‘네이처’에는 음의 윤초를 도입할 시기가 2029년으로 예상보다 3년 늦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져 자전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지만, 덕분에 음의 윤초에 대비할 시간을 좀 벌었으니 약간의 위안이 된다.

정쟁보다 균형찾는 국회 되길...

노트북 너머

정상원 금융부 기자



22대 총선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무소불위’로 여겨질 터다.

21대 정부위원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강했다. 위원장 포함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8명, 이 외 소수 정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정부위 법안 처리율이 30%대에 머물렀던 이유다.

계류 중인 법안도 부지기수다. 21대 정부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1767건. 이 중 계류 중인 의안은 1339건. 76%에 달한다. ‘일하는 국회’를 자처한 21대 국회가 ‘맹탕’ 국회로 왜 욕먹었는지 증명하는 수치다.

22대 정부위는 어떨까. 현재 야당이 차지한 의석수를 고려하면 정부위 역시 절반 이상이 야당 의원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총선 이전 여야에서 쏟아내던 금융 공약도 야권 정책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론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심사 때 다수결만 되면 상임위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었던 법안들도 관련 없는 정쟁에 발목 잡혀 결국 처리가 무산되

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 후 겨우 처리되기도 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22대 정부위에 새롭게 참여하게 될 의원들의 성향이다. 야당 인사 중 금융권 노조위원장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하며 정부위로 배치돼 ‘저격수’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금융당국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 자체로는 비판할 수 없다. 그동안 여야 간 법안 자체에 대한 이견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법안과는 무관하게 다른 정치적 갈등에 휘말렸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법안이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

21대 정부위는 공회전을 반복했다. 경기 부진과 고금리 기조 속 새롭게 들어선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에 치우쳐 자칫 입법 골든 타임이 놓칠까 우려된다. 22대 정부위에서는 정쟁에서 벗어나 금융시장과 소비자를 우선으로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길 기대한다.

jsw@

이투데이, 말투데이

☆ 피터 유스티노프 명언

“부모는 아이들이 자신의 이빨을 날라롭게 갈게 하는 뼈이다.”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두 번 수상한 영국 배우. 가장 국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은 전쟁으로 점령당한 독일 마을을 무대로 한 정치적 긴장을 옛날 이야기식으로 교묘하게 엮은 ‘네 대령의 사랑’이다. 대표작은 ‘로마노프와 줄리엣’.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21~2004.

☆ 고사성어 / 수고(受苦)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동정과 위로의 표시로 쓰는 말이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이 퍼낸 ‘국어대사전’(2009)에 실렸다. 그래서 ‘수고(手苦)’가 아니라 ‘수고(受苦)’로 써야 맞는다. ‘수(受)’는 두 손과 그릇 하나를 상징한 글자다. ‘고(苦)’의 본뜻

은 ‘쏟바귀’다. ‘삼국지평화(三國志平話)’에 처음 나온다. “답답해하던 유비의 눈에 장비가 단규를 한 주먹에 때려눕히고, 그가 데리고 온 군사들을 괴롭히던 장면이 떠올랐다(劉備心悶 目視張飛 一拳打中 張飛 讓帶 樂軍 受苦).” 우리나라 문헌으로는 ‘석보상절(釋普祥節)’(1447)에 처음 나온다.

☆ 시사상식 / 구인배율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자리 수를 취업 희망자 수로 나눠 구한다. 인력수급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로 이용하는 지표다. 예를 들어 구인배율 0.7은 취업 희망자 열 명당 일곱 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용 사정이 좋다는 것을 뜻한다. 구인배율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상의 해당 월 신규 구직자 수를 해당 월 신규 구인건수로 나누어 구한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업 해외투자 반감지 않은 까닭

반도체, 배터리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이어진다. 각종 시장조사업체에서 발표되는 보고서나 수출입 통계 지표 등에서도 위기 상황이 감지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반가운 뉴스가 없다. 한때 세계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 전자업체들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 눈길을 끄는 보고서를 하나 발견했다. 한국무역협회가 15일 '이차전지 수출 변동 요인과 향후 전개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배터리 수출 감소는 해외 생산 확대의 결과물이며, K-배터리 경쟁력은 이상이 없다는 희망 섞인 보고서다.

연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업체의 추격에 쫓겨 피워보지 못하고, 위기를 겪다 스러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접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름 위안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지난해 이차전지 수출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

기록했으나 이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글로벌 전기

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대비 29.6%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해외 공장에서 생산 후 판매되는 배터리는 국내 통관을 거치지 않으므로 수출 금액으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착시 효과를 가져왔다는 해석이다. 결국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국내 배터리 3사의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지며 국내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내 수출입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인 만큼 당연한 수치도 정확했을 것이고, 해석도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서 K-배터리의 위상이나 수출 감소에 대한 걱정을 지우지는 못했다. 오히려 또 다른 우려가 불안을 더 키웠다. 국내 수출 기업을 대표하는 협회에서 해외 생산량이 늘어난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는 상황인식이 더 걱정됐다. 협회 성격상 정부도 비슷한 인

데스크 서각

홍기범
부국장 겸 산업부장



식을 갖고 있겠다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국내기업이 해외 생산거점을 늘려야 하는 이유와 이를 '강 건너 불구경'처럼 방지하는 상황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런 상황은 배터리뿐만이 아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에도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규모를 44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투자액(170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한화로 따지면 60조 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물론 삼성전자는 투자의 대가로 60억~7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쟁을 위

해, 수요가 있는 곳에서, 특히 대규모 보조금 혜택까지 받으며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 상황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단지 그 상황을 방지하고, 천문학적 투자의 일부라도 국내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고민과 실행이 뒤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미국에 투자하는 440억 달러의 투자 효과는 누가 더 많이 누릴까. 해당 사업장에서는 누가 근무하게 될까. 일자리에 서 언어지는 임금은 어느 나라에서 사용될까. 각종 세금은 어느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갈까. 아무리 많은 질문을 던져봐도 아주 기쁘고, 유쾌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다. 이제는 국회도, 정부도 일할 시간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해외생산 늘면 이익도 커지겠지만 일자리·소비·세금 국내생산만 못해 국내투자 촉진하는 정책 나왔으면

마음상담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오늘 저는 '더 리터 책 읽어주는 남자'를 읽었습니다. 책의 첫 장면은 당황스럽게도 15살 소년과 31살 여성 한나의 첫 만남으로 에로틱하게 시작합니다. 이 둘의 사랑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한나의 잠적으로 끝나고 남자 주인공은 어느새 대학생이 됩니다. 어느 날 수업 중 참관을 하러 간 법정에서 우연히 만난 한나가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나치 선동대로 많은 유대인을 죽게 만든 현장에 있던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숨기기 위해 늘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한나의 비밀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남자 주인공에게 오해도 하고, 자신의 비밀이 들켜야 봐 승진 제안을 거부하고 이직을 하고 이사를 해버립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화두를 던져줍니다. 처음 시작은 미성년자와 성인의 육체적 관계로 충격을 주지만, 누구나 경험했던 청소년기의

방향과 뜻밖에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동화가 되었다가, 갑자기 유대인을 탄압했던 독일 나치와 수용소 역사의 한 가운데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한 개의 행동은 한 개의 결과로 끝나지 않고 연쇄 작용을 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중성을 나타냅니다.

누구나 살면서 경험해 봤을 법한 아이러니에 나도 모르게 두 주인공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치의 만행에 모르고 참여했던 일반 국민들의 무지는 우죄일까요? 문맹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억울한 상황에서도 재판을 포기하고 자신의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 죄를 뒤집어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한나의 행동이 이해가 되나요? 이런 혼돈 속에서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자 주인공이라면, 남자 주인공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자 주인공이 재판장에게 던진 질문이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이나 책글사람 대표·사회복지사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정부가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집을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월 초 2024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여 만에 그 실행안이 나온 것이다. 생활·방문·정주 인구를 늘려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89개 시·군·구(2021년 기준) 가운데 부산 동구 등을 제외한 83곳에 혜택이 주어진다.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서울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에서 주택을 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취득가액이 9억 원인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가 4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감소한다. 세제 혜택은 최대 8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컨드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청사진이다. 인구 문제는 농을 가릴 것 없는 국가적 우환거리지만 농어촌 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대다수 인구감소지역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됐다. 이런 지역들의 실정에 초점을 맞춰 다주택 규제의 잣대를 치운 것은 외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만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소멸을 막을 근본적 대책은 풍부한 양질의 일자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었다. 정부가 2021년 이후 5년 주기로 재지정하는 2026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세컨드홈 특례가 아무리 좋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인구 유입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 친기업 정책이 정공법이다. 울산시는 기업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운영 중이다. 김두겸 시장은 올해 초 울산에 사업장을 둔 기업체 신입사원들을 시청으로 초청해 전입을 환영했다. 울산 인구는 지난해 9월 기준 7년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저렴한 토지 분양가 등을 앞세운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전략으로 2022년부터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완주도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반등했다. 울산·완주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아져야 한다.

기업은 시장경제 논리로 움직인다. 유럽 최저 수준의 법인세로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이던 아일랜드, 상속세 폐지로 국부를 키운 스웨덴을 돌아봐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백악이 무효다.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법안들의 운명도, 인구감소 지역들의 미래도 갈리게 된다. 정부의 세컨드홈 대책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민주당의 어깨가 자못 무겁다.

초기 투자유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론

서광열

코드박스(ZUZU) 대표



열정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초기 스타트업들에 있어 투자유치 성공은 무엇보다도 큰 원군이다. 하지만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스타트업 CEO들이 벤처캐피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투자 유치에 대해 몇 가지 공통된 오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가치보다 자금규모가 더 중요해

대표적인 오해는 투자 유치 시 기업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근 시드 투자를 유치하는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는 대략 20억에서 30억 원 사이가 많다. 벤처캐피탈은 투자 이후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원하기 때문에, 투자금은 보통 2억~3억 원 사이다. 만약 시드 투자에 기업 가치를 20억 원이 아닌 100억 원으로 인정받고 2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다면 좋은 투자일까?

투자금이 동일하게 2억 원이라고 하면 기업 가치가 100억 원일 때와 20억 원일 때 투자자가 가져가는 지분은 각각 10%와 2%다. 창업팀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높을수록 지분 희석이 적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높을수록 좋아 보일 수 있다.

문제는 후속 투자가 필요할 때 발생한다. 시드 투자 자금은 제품 개발과 시장 검증만 해도 빠듯한 금액이고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후속 투자가 필요한데, 높은 기업 가치는 후속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초기 창업팀은 투자 유치 시 기업 가치보다는 필요 자금의 규모와 후속 투자의 시기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 좋다. 제품 개발 및 시장 검증에 2억 원이 필요하다면, 2억 원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기업 가치를 역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지분 희석을 줄이기 위해 높은 기업 가치로 필요보다 적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최악의 선택이다. 자금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고 후

속 투자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사업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하면 필요보다 조금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투자 유치에 관한 또 다른 오해는 투자자들이 흑자 기업만 선호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거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구조 조정을 하거나 도산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나니 이러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요즘은 시드 단계 기업에도 수익성을 묻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성장을 상징하는 J커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스타트업은 당장 작은 이익을 내는 것보다 빠른 성장을 통해 미래에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 더 큰 이익 집중

우리 회사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익을 낼 것 같은데 왜 벤처캐피탈이 투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벤처캐피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게 많다. 벤처캐피탈은 2~3배의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원금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100배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벤처캐피탈이다. 100배의 이익은 당장의 수익성이 아닌 J커브와 같은 가파른 성장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미래에 큰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당장은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노력에 더해 자본 시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18
YEARS
Global No.1 TV
18년 연속 세계판매 1위

마침내, 또 한 번의 진화 새로운 AI TV의 시대

Neo QLED 8K | Neo QLED | OLED

세계1위 신화의 시작, 보르도 TV

취향중중 시대의 개막, 라이프스타일 TV

컬러볼륨 100% 구현, QLED TV

삼성의 기술로 완성한 OLED TV

초대형 8K의 진화, Neo QLED TV

2024 Neo QLED 8K



| 8K AI 업스케일링 Pro | 저해상도 영상도 8K급으로 선명하게
| 액티브 보이스 Pro | 영상 속 목소리를 인식해 대사까지 또렷하게

| AI 모션 강화 Pro | 빠르게 움직이는 공이나 텍스트도 부드럽게
| AI 맞춤 화면 | 영상 장르를 인식하여 화질도 소비자 취향에 맞게

* 상기 기능은 QND900 모델 기준이며,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24 삼성 TV 런칭 특별전 (3/15 ~ 4/30) — 다양한 구매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2006-2023 세계 TV 판매 점유율 1위, Omdia 기준 * 컬러볼륨 100% 구현은 독일 VDE 컬러볼륨 테스트 검증 기준 (2017년) * AI 맞춤 화면 기능은 '24년 5월 부터 적용 예정임 * 시청 경험은 콘텐츠 종류와 포맷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삼성닷컴 참고